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59호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유통]
나는 편의점
지는 SSM
12

코스피 1949.04 (-14.63)
코스닥 668.42 (-14.92)
금리(국고채 3년) 1.79 (+0.01)
환율(원·달러) 1178.60 (+10.40) 〈8일〉

부품과장 MK, 20년 기름밥 먹고 '갤로퍼 신화'

갤로퍼에서 제네시스까지… MK의 도전 반세기

① 뚝심으로 밀어붙인 '갤로퍼'

2015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자동차가 나온 지 40주년을 맞는 해다.

1976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체 개발 모델인 '포니'를 생산해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갤로퍼'를 출시하며 국산 자동차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특히 포니와 같은 세단형이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란 새로운 국산차 장르를 개척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다양화와 혁신을 불러왔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직감하고 '뚝심경영'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정주영·정몽구의 DNA를 물려받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국산차 40주년을 맞은 올해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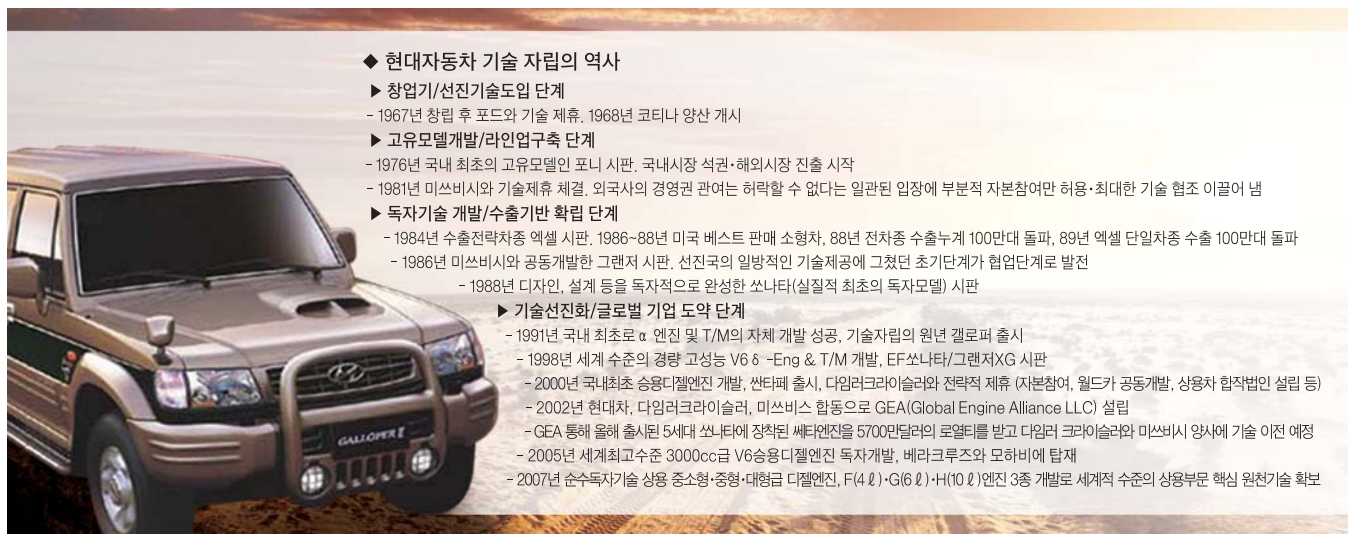
국내 자체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갤로퍼에서부터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제네시스까지 대한민국 자동차의 역사를 조명해 본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시장에서 40년 만에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력한 '뚝심경영'이 있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발전된 것을 원했던 정 회장은 "더 잘 만들 수 없나?"를 입버릇처럼 하며 몸소 실천했다.

정 회장은 1970년 현대차 서울사무소 부품과장으로 입사해 자동차 정비부터 접했다. 그렇게 현대차 서울사무소에서 시작된 정 회장의 자동차 애정은 1987년 시작된 '갤로퍼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금의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를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쌍용차의 '코란도'가 득세하며 사륜구동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존 디어사의 도움을 받아 골프 카트를 생산하며 자신감을 얻은 정 회장은 미쓰비시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엔진과 변속기, 섀시 등의 기술을 받아 미쓰비시의 파제로를 국산화하기 위해 힘썼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손수 갤로퍼 시제차를 주행해본 뒤 대형 핸들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정 회장의 노력을 거쳐 탄생한 '갤로퍼'는 1991년 10월 출시돼 첫 해에만 1만6000대, 이듬해에는 2만5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출시 4개월 만에 쌍용차 코란도의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렸다. 당시 업계에선 '혜성처럼 등장한 차가 기적을 만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日 미쓰비시에 로열티 지급하며
엔진·변속기 등 국산화 안간힘
출시 4개월만에 코란도 아성 위협

7만㎞ 달린 갤로퍼 대장정
'품질경영 자부심' 지금까지

이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 회장의 '뚝심'과 품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당시 정 회장은 갤로퍼의 우수한 내구성을 알리기 위해 '갤로퍼 대장정'을 추진했다. '갤로퍼 대장정'은 7만㎞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이벤트였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던 이벤트였다. 당시 갤로퍼의 디젤 4기통 2476cc 엔진은 73마력이었고, 이후 터보 차저를 얹어 81마력, 인터쿨러를 탑재해 101마력까지 끌어 올리면서 성능을 개선했다.

이후 갤로퍼는 1994년 12월 19일 누적 생산 10만대를 돌파하고 1997년 7월에는 20만대 판매를 기록한다. 기존 4륜 구동 차량의 투박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화된 이미지를 적용한 것도 소비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갤로퍼는 지난 2003년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기아차와 쌍용차가 갤로퍼를 견제하기 위해 스포티지와 무쏘를 출시하는 등 SUV 전성시대를 여는 촉매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는 갤로퍼 신화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레저용차량(RV) 붐을 이끈 싼타모를 출시하고 아반떼, 티뷰론, EF쏘나타, 그랜저XG, 싼타페 등 연이은 히트작을 내놨다.

또 정 회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BMW,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품질 경쟁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경기도 화성시에 '남양연구소'가 탄생했다.

특히 정 회장의 품질경영으로 '한국자동차=싸구려'라는 외국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차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막강한 브랜드로 알려지기에는 이같은 노력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기아차는 2012년 713만대를 팔아 처음으로 70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도 800만대 판매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정 회장의 '뚝심·믿음·도전 정신'이 현대·기아차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형 M&A, 외국계 10건중 7건 '독식'

국내 기업 간 중계업무까지 '싹쓸이'
올 거래액 상위 10곳 중 국내證 3곳뿐
IB시장 퇴출 위기… 경쟁력 확보 절실

국내 철강업계 '빅5' 중 하나인 동부제철. 냉연사업 부문에서 국내 철강업체 중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이어 생산량 3위인 동부제철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과잉 투자로 5년 연속 적자(연결 기준 당기순손실)를 내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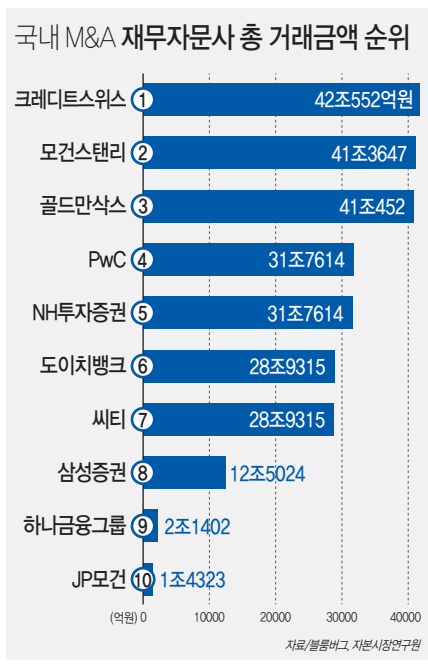
견디다 못해 지난 10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곧바로 채권단은 바쁘게 움직였다. 지금 자금 수혈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영권 매각 방식은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채권단 지분 45.7% 매각 방식이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자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동부제철 신주를 사들여 동부제철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효과를 기대하는 노림수다.

먼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야 했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시장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간사는 외국계가 맡는 쪽으로 기울었다. 현대제철 외에 국내 인수가 마땅치 않아서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5곳의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고, 노무라가 선정됐다.



금융투자(IB)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규모가 조단위 이상일 때 주간사를 국내 증권사에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면서 "누구는 참여기회를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도 없어서 처음부터 국내 증권사는 배제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 M&A 시장 자문 외국계가 독식

국내 대형 M&A 재무자문시장을 외국 투자은행(IB)이 독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질적인 성장을 주문한다. 폭넓고 다양한 경험, 대외 네트워크, 뛰어난 분석능력 등에서 외국계가 한 수 위란 설명이다.

8일 블룸버그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 3곳이 올해 국내 M&A 재무자문 시장 '톱3'를 차지했다. 상위 10위에 든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그룹 3곳이 전부다.

국내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부문 공동자문사 형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이 JP모간과 함께 매각주관을 맡았다. 대한전선은 하나대투증권이 JP모간과 공동주관을 맡았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심각한 문제는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사업중심의 대기업 계열사 간 M&A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M&A시장엔 외국계 증권사와 매물을 쥐락펴락 하는 산업은행 M&A실만 남게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움츠러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등이 매물로 나왔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국내 기업 간 M&A 중개업무까지 외국계 IB가 싹쓸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 매각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과 크레디트스위스(CS)가 주간사다. NH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등 인수도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의 중개로 이뤄졌다. 〈10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

이젠 버스 탈 때도 '삼성페이'로~

모바일 티머니·캐시비 제휴
교통카드 서비스 추가 실시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로 지하철에서 버스·택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교통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카드 서비스는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티머니와 캐시비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발급된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삼성페이 발급 후 앱 실행 없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카드 결제기에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기존에 삼성페이를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후불 혹은 선불 충전이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티머니는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로 충전이 가능하며, 모바일 캐시비는 롯데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결제가 가능한 제휴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페이는 최근 누적 결제금액 2500억원, 누적 결제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말 가입자 100만명과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돌파한 후 1개월여 만에 누적 결제 금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사용 저변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가 교통카드 기능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모바일 결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지속 협력해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페이로 버스 결제를 하며 탑승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편 티머니와 캐시비는 '삼성 페이 교통카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제공, 충전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와 티머니(www.t-money.co.kr), 캐시비(www.cashbe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한줄 News

▲ **정치·사회·국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호통과 호소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시절 정책을 거론,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 성토했다.

▲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중 부산시의 도시철도기업인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곳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아 내년 임직원의 보수가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 **중국** 수도권에 스모그 적색경보가 처음 내린 가운데 둥베이지방 랴오닝성 일대에도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다시 발생했다.

산업

▲ 2015년은 국산 자동차가 선보인 지 40주년을 맞는 해다. 1976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함으로써 자동차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 **LS그룹**이 8일 LS니꼬동제련, 가온전선, LS네트웍스 등 3개 계열사의 대표이사(CEO)를 교체하는 등 2016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금융·부동산

▲ 국내 대형 **M&A 재무자문시장**을 외국 투자은행(IB)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외국인투자은행(IB)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전체면적 1000㎡ 미만 빵·떡 공장 증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통

▲ **한국P&G**는 SK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성 후기를 실제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00만원이 부과됐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이유 있는 사랑

추억의 OST 등 아날로그적 감성 통했다

풋풋한 첫사랑 소재 공감
최고 시청률 14.8% 기록
OST도 음원차트 상위권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민을 1988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술 같은 드라마가 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따뜻한 가족이야기와 아날로그식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이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시리즈 매력 살린 '남편 찾기'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남편 찾기'다. 극 초반 덕선(혜리)의 남편은 선우(고경표)와 정환(류준열)이 유력했다. 하지만 선우의 사랑이 보라(류혜영)를 향했고 택(박보검)이 덕선을 좋아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 후보는 택과 정환으로 좁혀졌다.

최근 방송된 '응답하라 1988' 10화에서는 덕선을 좋아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모습에 표정이 굳어진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환이다. 정환은 소꿉친구 덕선에게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숨기고 있다. 택과 정환의 극과 극 애정표현이 시청자로 하여금 남편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신원호 PD는 "누구나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첫사랑이 있다. 첫사랑이라는 소재가 시청자에게 따뜻한 공감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억 자극하는 음악

드라마에 등장하는 추억의 OST는 시청자에게 듣는 재미를 선사한다. 80년대 히트곡을 재해석한 '응답하라 1988' OST는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전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8일 멜론 주간차트(11월 30일~12월 6일)에 따르면 드라마에 삽입된 '소녀'가 3위에 올랐다. '혜화동'과 '걱정말아요 그대'가 각각 4위와 5위를, '청춘'이 11위를 차지했다.

밴드 혁오의 보컬 오혁이 부른 '소녀'는 1980년을 대표하는 이문세의 노래가 원곡이다. 이밖에도 80년대의 주옥 같은 음악인 동물원의 '혜화동'과 산울림의 '청춘', 들국화의 '걱정말아요 그대' 등을 박보람, 김필, 이적이 각각 재해석해 불렀다. 지난 5일에는 다섯 번째 OST로 디셈버의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 발매됐다.

드라마 OST의 이 같은 기록은 음악계에서는 흔치 않은 신구 음악 팬의 지원이 밑바탕이 됐다. 음반 차트를 주도해왔던 10~20대 뿐만 아니라 1988년대를 직접 몸으로 겪은 중년 팬까지 가세해 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주연 없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주·조연의 경계가 없다. 덕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정과 사랑 이야기가 매주 등장하지만 극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택의 아빠 최무성의 아들 사랑, 남편 잃고 혼자 선우를 키우는 김선영이 겪는 고부갈등 등이 그렇다. 가장 최근 방송에서는 김성균이 생일만 되면 슬퍼하는 이유도 그려졌다.

또한 드라마는 정환의 형 정봉(안재홍)과 덕선의 언니 보라를 대중에 알렸다. 선한 성품과 독특한 수집 취미를 갖고 있는 정봉은 최근 '늑대의 유혹'의 우산 신을 패러디해 시청자 웃음을 유발했다.

한편 '응답하라1988' 10화는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13.9%, 최고 시청률 14.8%를 기록했다. 케이블 채널에서 평균 10% 대의 시청률은 이례적인 기록이다.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0월 가계대출 12조원 폭증… 월간 최대규모

한은,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
10월 말 잔액 792조4000억원

지난 10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11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 10조1000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과 주택도시기금 취급분 2000억원을 합하면 가계가 10월 한 달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12조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금의 10월말 잔액은 792조4000억원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 양도분 등 107조4000억원을 합친 금액은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이다.

〈2015년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감액, 조원)

	1~10월중	9월중	10월중	잔 액(10월말)
예금취급기관[1] (A+B)	46.6	7.5 (8.0)	11.8 (8.5)	792.4
┌주택담보대출	26.9	5.7	7.5	487.5
└기타대출	19.6	1.8	4.3	304.9
예금은행1) (A)	30.5	5.4 (7.9)	8.6 (8.2)	550.2
┌주택담보대출	24.8	5.1	6.7	390.4
└기타대출	5.7	0.3	1.9	159.8
비은행예금취급기관1) (B)	16.1	2.1 (8.2)	3.2 (8.9)	242.2
┌주택담보대출	2.1	0.7	0.8	97.1
└기타대출	13.9	1.5	2.4	145.1
┌상호저축은행	2.9	0.2	0.5	13.2
| 신용협동조합	3.2	0.4	0.7	28.8
| 상호금융	6.9	1.1	1.4	148.6
| 새마을금고	3.0	0.5	0.6	50.4
└신탁·우체국예금	-0.1	0.0	0.1	1.2
〈참고〉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2]	32.8	1.0	0.2	107.4

주 : 1)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유동화분 포함) 및 주택도시기금 취급분으로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 빚(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4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건설업체들의 분양물량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가을 이사철 주택구입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중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기타대출 증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소비확대 정책에 맞춰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서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8조6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대출이 3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기타대출이 2조4000억원 늘었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립식품

중량 늘리고, 가격 올리고

밀크후레쉬팡 등 11개 품목 조정

삼립식품이 일부 제품의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기존 제품의 리뉴얼을 통한 중량 증대와 함께 이뤄졌다.

8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립식품이 빅땅콩샌드 등 11종의 제품을 리뉴얼하고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은 12.6%다.

밀크후레쉬팡은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률(36.4%)이 가장 높았다. ▲촉촉한 카스테라 ▲상큼한오렌지케익 ▲상큼한딸기케익 등은 9.1%로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1000원이던 빅땅콩샌드와 초코소보루는 1100원으로 10% 인상했다. ▲단팥크림빵 ▲카스타드단팥빵 ▲카스타드소보루 ▲빅초코데니쉬 ▲빅스위트데니쉬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1.1% 올랐다.

삼립식품측은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중량을 늘리면서 리뉴얼을 실시한 것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 단순 가격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리뉴얼이 최근 식품업계에 불고 있는 착한 포장 열풍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격인상률이 가장 높은 밀크후레쉬팡은 중량이 75%나 늘어났지만 인상률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유현희·김성현 기자 yhh1209@

〈삼립식품 리뉴얼 제품 가격변동〉

리뉴얼 상품명	인상 전 (원)	인상 후 (원)	인상율 (%)	비고
빅땅콩샌드	1,000	1,100	10	중량(110g -> 120g 9% 증가)
초코소보루	1,000	1,100	10	중량(100 -> 105g 5% 증가)
단팥크림빵	900	1,000	11.1	중량(90g -> 100g 11.1% 증가)
카스타드단팥빵	900	1,000	11.1	중량(90g -> 100g 11.1% 증가)
카스타드소보루	900	1,000	11.1	중량(85g -> 100g 17.6% 증가)
촉촉한카스테라	1,100	1,200	9.1	중량(85g -> 95g 11.8% 증가)
상큼한오렌지케익	1,100	1,200	9.1	중량(85g -> 90g 5.9% 증가)
상큼한딸기케익	1,100	1,200	9.1	중량(85g -> 90g 5.9% 증가)
빅초코데니쉬	900	1,000	11.1	중량(90g -> 95g 5.6% 증가)
빅스위트데니쉬	900	1,000	11.1	중량(90g -> 95g 5.6% 증가)
밀크후레쉬팡	1,100	1,500	36.4	중량(80g->140g 75% 증가)

건대 집단폐렴, '실험실 사료'서 병원체 증식 추정

'방선균' 미생물 관찰 돼
보건당국 "추정일 뿐"

보건당국이 지난 10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집단 폐렴의 원인으로 방선균을 지목했다. '실험실 내 사료'에서 증식한 병원체를 지목했다. 환자의 검체와 실험실에서 곰팡이와 유사한 세균인 '방선균'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실험실에서 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방선균 증식이 이뤄졌고,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다른 층에 있는 실험실로 세균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병원체의 감염 양상이 기존 사례와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역학조사자문단은 8일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사료와 실험실 환경, 환자의 검체에서 방선균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관찰됐다"며 "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병원체 검사 결과에 따라 방선균을 의심 병원체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선균은 흙이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세균이다. 끝에 포자가 있어서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와 유사하며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과민성폐장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확인된 방선균의 인체 감염은 그간 국내에서는 보고가 없었다.

기존에 알려진 방선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은 알레르기 면역반응이지만 이번 사례는 감염에 의한 염증이어서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감염 양상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의심 병원체인 방선균에 대해 '추정'일 뿐 '확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현 기자 minus@

대통령까지 나선 노동개혁 법안, 왜 처리 안되나

1 비정규직 충돌 2 野 내홍 변수 3 총선체제 돌입

'비정규직 4년' 연장두고 팽팽
문재인 vs 안철수 구도도 암초
연내 처리 불발땐 '자동폐기'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5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내 처리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연합뉴스

정부의 핵심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이 기로에 섰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개최를 표명한 가운데 5개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행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 참석해 '평화지킴이'를 자처, 노동개혁 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 일괄 처리 vs 법안 분리…새로운 국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접점 난항 ▲법안 끼워팔기 ▲야권 내홍에 따른 협상력 저하 등으로 노동개혁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타결의 첫 번째 관문은 여야의 쟁점 법안 접점 찾기다. 노동 5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법안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법의 운명이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양산의 두 기로에 처한 셈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가지 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전제로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3개 법은) 개선과 개악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합의 불가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개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분리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합의문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 기일을 정하는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 '끼워팔기' '야당내홍'… 변수 산적

입법을 둘러싼 두 번째 난항은 임시국회 내 '법안 끼워팔기' 우려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법 외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노동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법안을 주고 받는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문제다. 여당은 '연내 처리'로, 야당은 '무(無)기한'으로 해석을 달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법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자 새누리당은 결국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 국회 개회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내홍도 변수다.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의 정쟁이 길어질 경우 노동법 처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협상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정쟁이 입법 타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 총선체제 돌입… 연내 처리 불발 시 '폐기'

총선 정국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당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각당의 총선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내년 1~3월 임시 국회 개회 자체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각 당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법안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노동법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5개 법안이 일괄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실패는 금융부실로 확대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朴대통령 "노동개혁 거부는 청년들의 족쇄"

"입법 무산되면 국민 분노할 것"
야당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호통과 호소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 시절 정책을 거론,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하고 성토했다.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여과 없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절박한 심경을 환기시킨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연내 처리 '사활'…野에 직격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달 10일과 24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와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와 삶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법안들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으나, 여당이 박 대통령 뜻에 호응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기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야당에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참여정부 시절 추진…입장 바뀌니 반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대야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졌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면서 법통과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프레임에 매몰됐다는 호통인 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서도 "공급과잉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애초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로 잡혔다가 국무위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소집한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됐다.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14분의 모두발언 시간 대부분을 법안 처리 문제에 집중했다.

/연미란 기자

2020년, 친환경車 100만 시대 만든다

수출 18조원 전망·일자리 9만개 창출
5년간 R&D 투자·구매 보조금 유지

정부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한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전기차 카 셰어링 업체인 씨티카의 차량이 충전 중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이자 자동차 산업의 신(新)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60만대로 증가하고, 수출시장 규모는 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 등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온실가스 380만t 감축,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과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단거리 주행(전기차), 비싼 가격(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 향상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현재(80~130㎞)에서 대폭 확대하는 등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키면서 차량 가격도 5년 내 현재(8500만원 수준)에서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20년까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를 487개에서 1400개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도 울산 등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가능한 지역에 중점 보급해 현재 13개에서 8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도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기준 차량 한 대당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차 충전사업 기준, 신규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사회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허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네이버, KT, 한화첨단소재, 오비고 등 국내 자동차,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통신, 소재 등 각 업종 선도기업들은 자동차 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기업연합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얼라이언스는 자동차 융합 R&D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내 '자동차+타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미란 기자

‘저유가 불똥’ 신재생에너지로… 아벤고아 파산위기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블룸버그, 사업발전 예측에도
세계최대 태양광기업 선에디슨
3개월새 시가총액 90% 날아가
‘확장 실패’한 아벤고아도 고전

남아공의 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가 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의 블룸버그는 7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저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석유와 신재생에너지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 ▲태양광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하락 ▲원유가 하락에 못 미치는 주유소 유가 ▲셰일오일의 패배 이후 원유가는 결국 상승하게 된다는 점 등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이유다. ▲저유가 시대 전기차 판매의 지속적 증가 ▲저유가 시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의 꾸준한 투자 증가 등은 실질적인 증거다.

실제로 올해 전기차 판매는 크게 늘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32만 대에서 올해 9월까지 33만4000 대로 크게 증가했다. 당초 전기차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은 고유가 시대에 대안으로 시장에 등장했지만 저유가 시대에도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40 달러선이 붕괴된 8일 현재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늘었다. 지난해 새로 지어진 전체 발전소의 절반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였고, 신규 투자의 60%가 신재생에너지로 흘러가고 있다. IEA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40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이 전체 에너지의 36% 수준으로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5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10월 신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역시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REN21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2.8%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늘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2013년 138GW에서 지난해 177GW로 크게 늘었다. REN21은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2017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60GW, 2022년 100GW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로 일치한다. 고유가 대체수단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가 독자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석유 중심의 에너지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의 중대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결론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저유가 국면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도 무풍지대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최근 미국의 선에디슨과 스페인의 아벤고아의 위기는 그 증거다. 태양광 발전의 최선두 주자인 선에디슨은 올해 3분기 실적부진과 태양광 발전 자회사 상장 흥행 실패로 3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이 90%나 하락했다. 아벤고아 역시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벤고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독립전력생산자프로그램(REIPPP)에서 태양광 발전 플랜트를 수주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왔지만 꾸준히 손실을 보면서 고전해 왔다.

남아공 일간 데일리매버릭은 두 업체의 위기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신호”라며 “저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향후 궤적을 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조정에는 가격도 포함된다.

데일리매버릭은 REIPPP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과열경쟁을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진보, 플랜트 건설 경험의 축적,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나친 경쟁이 입찰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벤고아의 위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위원회 마이크 레빙턴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석유에너지 전문매체인 오일프라이스 역시 “아벤고아 위기는 단지 한 업체의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 업체들도 아벤고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유가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셰일오일업체들이 고사할 때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OPEC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적자 위기로 국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치킨게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우디의 밀어붙이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미국 셰일오일의 점유율은 줄고 있다.

문제는 미국 세일오일의 생산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드느냐다. IEA는 내년 1월까지 미국의 하루 셰일오일 생산이 현재보다 11만6000 배럴 적은 486만 배럴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C내 사우디에 대한 반발도 또 하나의 변수다. 사우디가 이번 OPEC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다른 회원국들은 저유가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지난 6일 총선에서 좌파정권이 참패했다. 또 다른 회원국인 브라질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의 정치지형이 일변할 경우 OPEC의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지난 4일(현지시간) OPEC 정기총회가 호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OPEC은 원유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조선·건설업계 직격탄… 산업계 비상

산유국 발주처 물량 취소·축소해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지 못해 국제 유가가 30 달러대로 추락하며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자동차, 항공 등 일부 업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유가의 피해를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조선·건설업계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409억 57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595억6000만 달러에 비해 31.3% 감소했다. 중동 지역의 수주액은 147억2600만 달러로 지난해 306억3300만 달러에 비해 52% 감소했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 발주처가 발주물량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영향이 크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발주처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을 일방 해지당해 2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역시 미국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건조를 완료한 드릴십 인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해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중동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는 각 정부기관에 모든 산유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라스 타누라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 재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카타르는 알카라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수익성 악화 문제로 발주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동의 경기가 나빠지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저유가로 인해 중동지역의 발주량이 줄거나 연기돼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일차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국고를 아끼기 위해 프로젝트 공사 대금 지급을 6개월 이상 지연하기도 했다.

장기적인 저유가는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고 석유제품을 되파는 구조에서는 유가 불확실성이 악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지구촌 온실가스 첫 감소… 지구 온난화 변곡점

COP21 컨퍼런스 연구 0.6%↓
中의 석탄소비 감소가 큰 원인

“인도·中 경제부활 가능성 남아
아직 온실가스 감소 단정일러”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지난의 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을 뿜고 있다. 이 공장은 오염배출시설로 지목돼 공장 이전이 확정된 8개 업체 중 하나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소폭 증가해 최고점을 찍었다가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최초의 사례다.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구촌 모두의 싸움이 드디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연구기관인 세계탄소프로젝트(GCP)는 7일(현지시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르 부르제에서 컨퍼런스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를 통해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평균 2.4%, 많게는 3% 증가했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온실가스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의 석탄 소비 감소가 꼽힌다. 중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석탄 사용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배나 증가했고 여전히 전세계 사용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개월 동안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석탄 수요가 정점을 찍었거나 곧 찍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2030년까지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추세로 봤을 때 2025년에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온실가스에 대해 비관적인 전문가들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다음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인도가 문제다. 인도는 빈곤층 3억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도가 화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을 2배로 늘린다면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석탄 사용량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정부들은 더 많은 화력발전소를 세우고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화력발전소 155개소가 예비 허가를 받거나 완전히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원상복귀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러시아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던 2009년과 러시아 경제가 붕괴됐던 1990년대 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었다. /송병형 기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부사장

1960년생
경북대 회계학

2016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CEO 부사장
2012 LS 재경부문장 CFO 부사장
2009 LS CFO 겸 인사/지원부문장 전무
2006 LS전선 경영관리담당 상무
2004 LS전선 경영관리담당 이사
1986 LG유통(現 GS리테일) 입사

김연수 가온전선 부사장

1960년생
부산대 기계공학
경북대 경영대학원

2016 가온전선 대표이사 CEO 부사장
2015 LS I&D PMO부문장 부사장
2011 LS전선 통신사업부장 전무
2007 LS전선 통신사업부장 상무
2004 LS전선 광통신생산담당 이사
1985 LS전선 입사

이경범 LS네트웍스 부사장

1960년생
성균관대 행정학

2016 LS네트웍스 대표이사 CEO 부사장
2013 LS네트웍스 신규브랜드본부장 부사장
2011 삼화모터스 대표이사 사장
2008 LG패션(現LF) 신사캐쥬얼부문장 부사장
2001 LG카드 영업담당 상무
1988 LG그룹(LG카드) 입사

김원일 LS산전 부사장

1963년생
부산대 회계학

2016 LS산전 전력인프라사업본부장 부사장
2014 LS산전 융합사업본부장 전무
2011 LS산전 CFO 전무
2006 LS산전 경영혁신담당 상무
2004 LS산전 경영혁신담당 이사
1985 LS산전 입사

윤선노 E1 부사장

1958년생
세종대 회계학
고려대 경영대학원

2016 E1 재경본부장 CFO 부사장
2013 E1 재경본부장 CFO 전무
2011 E1 재경본부장 CFO 상무
2008 E1 재경본부장 CFO 이사
1982 LG칼텍스가스(現 E1) 입사

최영철 E1 부사장

1958년생
경북대 불문학

2016 E1 해외사업본부장 부사장
2015 E1 해외사업본부장 전무
2013 E1 수급본부장 전무
2011 E1 수급본부장 상무
2008 E1 수급본부장 이사
1982 LG칼텍스가스(現 E1) 입사

LS, 세대교체 마무리… '60년대생 재무통' 전진 배치

LS그룹 2016 임원인사 단행

LS니꼬동제련 등 3개사 CEO 물갈이
사업재편 속도… 미래성장 준비 집중

LS그룹이 8일 LS니꼬동제련, 가온전선, LS네트웍스 등 3개 계열사의 대표이사(CEO)를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3명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부사장 3명, 상무 4명, 신규이사 10명 등 총 20명의 임원이 승진했지만 지난해(36명)보다 규모가 대폭 줄었다.

LS-니꼬동제련은 도석구 ㈜LS 부사장이, 가온전선은 김연수 LS I&D 부사장이, LS네트웍스는 이경범 부사장이 각각 대표이사 CEO로 신규 선임돼 회사를 이끌 예정이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전문경영인으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룹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석구 부사장은 2008년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정착에 기여했고 지주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자회사 재무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그룹의 가치 제고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연수 부사장은 미국 수페리어에식스(SPSX)의 구조조정 PMO로 강한 업무 추진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경범 부사장은 LS네트웍스 브랜드사업본부장으로 프로스펙스·스케처스·몽벨 등 브랜드 사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S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LS전선, LS엠트론, 예스코, LS메탈 대표이사 교체까지 포함하면 그룹의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가 대부분 교체돼 CEO 세대교체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LS산전 김원일 전무는 융합사업본부장으로 초고압사업과 스마트그리드, ESS 분야 등의 사업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1의 윤선노 재경본부장 전무는 2015년 목표대비 세전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자회사 흑자경영을 주도했다. E1 최영철 해외사업본부장 전무는 신규 선박을 적극 유치해 LPG 시운전 작업물량을 증대시키고 구매선 다변화·운송비 절감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각각 승진했다.

상무 승진자는 문명주 ㈜LS 경영기획부문장, 김동현 LS산전 재경부문장 CFO, 이동수 LS-니꼬동제련 영업담당, 정교원 GCI 대표이사 등 4명이다.

이외에 이재영 구매물류부문장 CPO, 김승환 소재영업부문장, 이상호 재경부문장, 김종필 품질부문장, 김환 구미·인동지원실장(이상 LS전선), 신동혁 전력인프라사업본부 국내사업부장, 손태윤 재경부문 법무실장(이상 LS산전), 박성실 기술담당, 정경수 리빌딩 담당(이상 LS-니꼬동제련), 천정식 운영본부장(E1) 등 10명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올해 초 지주회사인 ㈜LS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영입한 안세진 전무를 시작으로, 이준우 ㈜LS 경영기획담당 이사 등 사별로 역량이 검증된 외부 인재를 추가 영입해 그룹의 미래준비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경영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다.

LS그룹 관계자는 "2016년에도 경영 환경 측면에서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개선을 이끌고 미래성장 준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원인사는 이러한 그룹의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조직분위기 쇄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달라진 채용문화… 대기업 '스펙' 안본다

삼성·현대자동차·SK 등 20곳
학점 등 직무와 무관 항목 삭제
롯데·포스코는 '블라인드 면접'

지난달 23일 성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가 업체와 면접을 하고 있다. /오세성 기자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21개 주요 대기업 그룹 채용에 '탈(脫) 스펙' 바람이 불고 있다. 학점이나 어학성적은 물론 사진까지 못붙이게 하는가 하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21개 그룹의 올해 대졸공채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원서류에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한 곳은 삼성·현대자동차·SK 등 20곳에 달했다. 면접 전형에서 출신학교와 전공 등의 신상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곳은 롯데와 포스코, GS 등 10개 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1994년부터 '열린 채용'을 도입해 지원서류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점제한(4.5만점에 3.0 이상)을 폐지했다. 또 창의성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과 논리전개 과정을 평가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부터 지원서류에 사진, 가족정보, 해외경험 등의 기입란을 없앴다. 올해부터는 동아리와 봉사, 학회활동 기입란을 삭제하고 하반기부터 1차 면접 복장을 자율화했다. 서울 양재동 본사에 채용전용 면접장인 H-스퀘어를 마련해 매월 직무상담회와 상시면담도 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지원서류에 사진, 어학 성적, IT 활용능력, 해외경험, 수상경력, 주민번호, 가족관계 등을 없애고 자기소개서 위주의 서류전형을 하고 있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어학 성적, 자격증, 수상경력, 인턴 경험, 주민번호, 사진, 가족관계 등을 뺐다.

롯데그룹은 2010년 상반기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진, 어학 성적, 자격증, IT 활용능력, 수상경력, 대외활동경험 등을 삭제했다. 면접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직무 중심(역량구조화면접)을 도입했다. 2013년 상반기부터는 학교, 전공, 학점 등을 가린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공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서류에 어학 성적, 해외경험 등을 삭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NCS기반 채용을 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직무역량·최종 면접을 블라인드로 하고 있다.

GS그룹 주요계열사인 GS건설은 해외경험, 병역, 가족관계 등을 보지 않는다.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등은 1차 실무진 면접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을 가린 블라인드 면접이다.

LS그룹은 올해부터 개인정보와 경력, 사회활동, 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육 이력 등을 뺐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상실적·사회봉사경험,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해외경험·가족정보 등을 삭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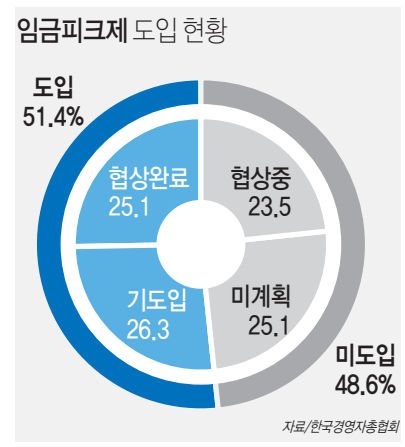
현대그룹의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부터 학점, 어학성적, 전공 등의 지원제한을 폐지했다. 면접은 1차 토론을 블라인드 형태로 이뤄진다.

효성그룹은 올해부터 사진, 가족관계 등을 보지 않는다. 면접은 업무지식과 문제해결능력 검증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2011년 하반기부터 에세이에 직무 관련성이 높은 항목만 쓰도록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취업준비생들이 영어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의 스펙을 갖추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주요 그룹에서는 탈스펙 채용문화가 퍼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대졸 공채제도 변화에 맞춰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임금피크제, 매출 200대 기업 중 '절반'

한국경영자총協, 현황 조사
25%는 도입 논의조차 안해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4분의1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특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23.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 2014년(21.7%)과 2015년(21.7%)에 시행시기가 집중돼 있었고 2013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도 7.7%에 달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상급단체별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이 78.3%,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경우 58.8%, 민주노총인 경우 40.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66.9%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3.1%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74.7%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은 47.2%만이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부담에 기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분석된다.

응답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은 55.1%, 노조가 없는 기업은 39.1%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74.0%가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 모두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경우가 각각 75.9%,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기업의 기존 정년은 평균 57세로 나타났으며 기존 정년이 55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정년이 58세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노조가 없는 기업은 55세인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정은미 기자

〈1988〉

〈1994〉

왼쪽부터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한 엑셀, '응답하라 1994'에 등장한 EF쏘나타, '응답하라 1997'에 등장한 티뷰론.

중산층의 꿈 '포니2'… 부자의 상징 뉴그랜저…

'응답 시리즈'로 본 그시절 현대차

과거로 떠나는 추억여행 속 감수성 자극시키는 엔틱車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등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며 추억여행을 하는 시청자가 많다.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삶을 그대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사용했던 패션 아이템은 물론 유행어 등이 복고 바람을 타고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현대차 블로그가 이들을 위해 '응답하라'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현대차들을 소개했다.

최근 방영 중인 '응답하라 1988'에서 김성균-라미란 부부는 복권 당첨으로 일약 중산층이 돼 포니2를 구입한다. 그리고 라미란의 생일에 레스토랑에 돈가스를 먹으러 가기 전 정성스레 광을 내며 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당시 포니는 중산층의 상징이자 꿈이었다. 집 한 채 가격에 육박하던 포니만 있으면 사회적인 성공을 뽐낼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포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포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고유 모델이다. 포니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세계에서는 열여섯 번째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됐다.

포니2는 1982년 선보인 포니의 2세대로 국내 최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새로운 형태의 5도어 해치백 스타일은 출고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제3세대 승용차'를 표방한 엑셀은 TV 광고로 선보였다. 극 중 인물 최무성이 심란한 마음으로 TV를 보는 장면에서 이 광고가 노출된 것.

엑셀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앞바퀴 굴림 승용차다. 보닛이 열리는 방향이 다른 승용차와 반대인 점도 특이했다. 1994년까지 수출을 포함, 144만여 대를 판매해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1990년대 초반을 상징하는 자동차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현대차는 드라마 상에서 1988년도 가을인 그 때, 1989년 출시된 엑셀 광고가 나와 고증 상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하라 1994'에는 뉴그랜저가 나온다. 극중 성나정과 조윤진은 편의점에 잠복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기다리면서 검은 고급 세단을 확인한다. 당시 부자의 상징인 뉴그랜저다.

윤진은 뉴 그랜저 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서태지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다. 2000년을 다룬 장면에는 EF 쏘나타가 등장한다. 초보운전 나정과 칠봉이가 운전연습을 하는 장면인데, 돌발상황에서 앞차에 1㎝ 남짓 남겨두고 멈춰 우수한 제동성능을 선보였다.

EF쏘나타는 당시 북미시장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2004년엔 영화 '본 슈프리머시', 2005년엔 '우주전쟁', 2008년엔 '허트로커'에 등장했다.

'응답하라 1997'에는 '포카리'가 나온다. 바로 티뷰론 스페셜이다. 극중 HOT를 좋아하는 성시원은 토니안의 집 앞에서 하늘색 보디에 하얀 스트라이프로 도색된 토니안의 차 '포카리'를 본다. 당시 티뷰론은 뭇 남자들의 명실상부 최고의 드림카였다.

쏘나타 3도 추억 드라이브에 한 몫했다. '응답하라 1997'에서 수능이 끝난 태웅이 구매한 차가 쏘나타 3다. 당시 쏘나타 3는 수험생들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쏘나타 3에서 로마 숫자 III를 떼어가면 당시 기준으로는 고득점인 300점대를 얻을 수 있고 S를 떼어가면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멀쩡한 쏘나타가 졸지에 '오나타'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와 '상생 사다리' 펼쳐

"벤치마킹해 동반성장 노력"

현대모비스는 2차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협력사 벤치마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모비스가 운영 중인 협력사 품질인증 시스템인 MSQ를 기반으로 선정한 우수협력사의 품질향상과 공정개선 경험을 다른 협력사와 나누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 185개사가 품질 우수 2차 협력사인 경원전자와 원텍을 방문해 생산라인 견학과 개선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력사 벤치마킹은 눈높이가 비슷한 2차 협력사들 사이의 품질, 경영 경험 전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1차 우수협력사를 2차 협력사가 벤치마킹한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2차 협력사 간 벤치마킹 활용 사례는 지난 201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통 1차와 2차 협력사간 벤치마킹 사례를 보면 작은 업체가 큰 업체의 우수 사례를 전수 받더라도 시스템과 여건 차이로 인해 2차 협력사의 공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눈높이가 비슷한 2차 협력사들 사이에는 동질적 측면이 많아,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송정공의 김학길 전무는 "형식적인 공장 견학과 간담회 수준에서 벗어나 협력사 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개선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현장에서 불량발생 시 효과적인 처리방식이나 내부 전산관리 방법, 그리고 설비 주변정리와 직원 교육훈련 방식 등에 대한 체감도 높은 정보들이 공유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현대모비스 구매본부장 현형주 부사장은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협력사 품질향상은 물론 현대모비스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만큼,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2차 협력사 대상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2018년까지 '車부품 인재' 2400명 양성

일자리 확대·인재 확보위해 상·하반기 400명씩 인턴십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2월 1일, 경기도 화성의 롤링힐스에서 현대차그룹 박광식 부사장, 현대·기아차 협력회 이영섭 회장, 1차 부품 협력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력사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디딤돌 MOU 협약식'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청년일자리 확대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자동차 부품산업 인재 2400명을 양성한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상반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400명씩, 2018년까지 총 2400명의 청년에게 직무교육과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는 8~21일 현대차그룹 고용디딤돌 사이트(www.hmgdidimdol.co.kr)에서 희망하는 회사 및 교육장소를 선택하고 원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초대졸 및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다.

현대차그룹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현대차그룹의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협력사 주도의 현장 인턴십 경험을 통해 구직자는 역량 향상과 취업 기회, 협력사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직무 교육, 실무에 활용 가능한 업무 스킬,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컨설팅 등의 직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교육훈련비 및 인턴급여로 5개월간 1인당 총 750만원과 별도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합격자는 8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친 후 200여 개의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 중 우수 인력은 각 협력사에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청년고용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취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내자동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의 롤링힐스에서 현대차그룹 박광식 부사장, 현대·기아차 협력회 이영섭 회장, 1차 부품 협력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력사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디딤돌 MOU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한화예술더하기'로 전통악기 배우고 문화체험 즐겨요

한화그룹·한국메세나협회 7년째 문화예술교육 운영

7일 저녁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좋은나무 지역아동센터 강당. 지역 어린이들과 한화 직원들로 이뤄진 사물놀이패의 신명 나는 국악과 탈춤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한화예술더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화예술더하기'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7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기금의 50%를 기부하고, 나머지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전국 100여개 복지기관의 2000여 어린이들에게 미술, 연극, 음악, 무용 등을 가르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영등포지역아동센터에서 공연한 초등학생들도 지난 8개월간 전문 사물놀이패 단원들로부터 꽹과리, 북, 장구 등을 다루는 법을 익혔고, 어른과 함께 어울리는 예절도 같이 배웠다. 이 행사는 동네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 앞에서 그 동안 익혔던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다.

이 같은 행사는 '한화예술더하기 재능나눔'이라는 이름으로 12월 중순까지 전국 스무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이라면 **누구든**

필요하다면 **언제든**

바라고 꿈꾼다면 **무엇이든**

KB가 있어

국민든든

KB가 국민 곁에서
평생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KB 손해보험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보험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

KB 금융그룹

‘CJ헬로’ 품은 장동현 “유료방송 1등엔 관심 없다”

〈SKT 사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통신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CJ헬로비전 M&A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도 내비쳤다.

장 사장은 7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CJ헬로비전 M&A 등 SK텔레콤의 향후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장 사장은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변화와 진화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사장은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SKT의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취임 이후 국내외 다양한 곳을 다니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통신산업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번 인수도 통신 업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통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이 SKT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 경쟁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사장은 “SK브로드밴드의 경쟁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CJ헬로비전과의 합병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른 시간 안에 부족한 부분을 좋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SK는 플랫폼 관리에 강점이 있고 CJ는 콘텐츠를 잘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SK는 가입자 관리와 콘텐츠를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CJ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CJ헬로비전 인수결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도 밝혔다. 장 사장은 “CJ와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지난 9월부터”라며 “CJ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협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두 회사 잘하는 것 연결해 국내 ICT산업발전 이끌 것, CJ헬로, 구조조정은 없다”

CJ 외에도 씨앤앰 등 여러 사업자들과 인수·합병을 논의했지만 인수 조건과 내용이 잘 맞은 곳은 CJ헬로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에 대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크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독점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장 사장은 “유료방송 시장 1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시장점유율 33% 제한도 있기 때문에 1, 2 등은 큰 의미가 없다”며 “SKT가 유선통신 시장에서 KT를 이기기 어렵고 SKT의 강점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연합뉴스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뒤에 CJ헬로비전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 사장은 “SK가 원래 어떤 회사와 합칠 때 구조조정을 잘 안 한다”며 “과거 신세계통신을 인수하고서도 합병할 때까지 구조조정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조정설을 일축했다.

장 사장은 앞서 간담회 인사말에서 “과거 싸이월드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후발 주자인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의 진화 과정을 지켜 보면서도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경쟁에 뒤처졌던 아픔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먼저 치고 나갔을 때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고 또 그 과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앞서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SKT의 가입자 해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루나 단말기 판매에서도 작은 성과를 거뒀다”며 “변화에 뒤처지지 말고 고객, 국가경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와 같이 두루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타이탄플랫폼, 윈벤션 영상공모전 개최

타이탄플랫폼이 디지털 콘텐츠 트랜스미디어 플랫폼 ‘윈벤션’ 오픈을 기념해 ‘제 1회 윈벤션 영상 공모전’을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제작방식, 자격 제한 없이 5분 이내 동영상을 찍어 응모할 수 있다. 타이탄플랫폼 모델들이 공모전을 소개하고 있다. /타이탄플랫폼

먼 바다에서도 LTE로 안전 책임진다

KT-해양수산부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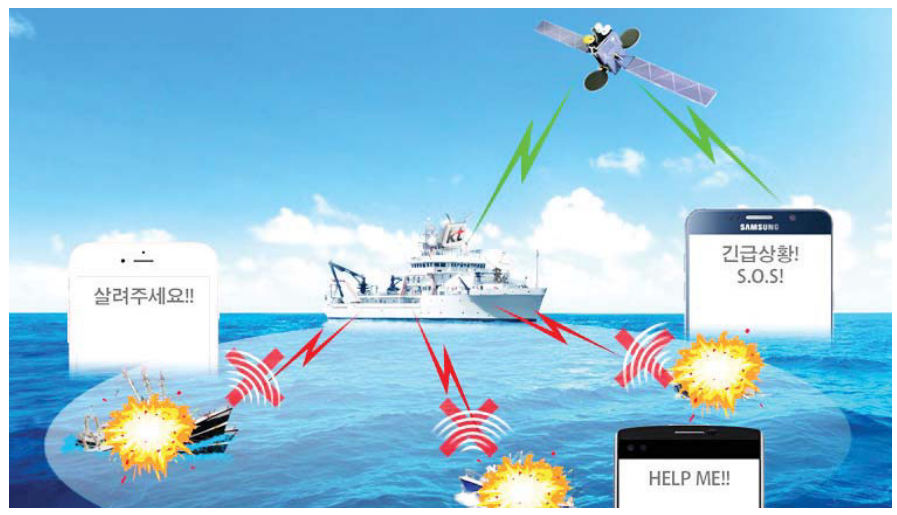
내년 2월까지 21척에 기지국설치

KT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이 가능한 ‘LTE SOS(Stand on Ship)’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상안전통신망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구축한다.

KT는 해양수산부와 ‘해상 안전 통신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이 해상안전통신망 확보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상 조난사고 발생을 대비한 긴급통신망 구축 ▲국가 어업지도선 등에 위성 LTE SOS 기지국 설치 ▲원활한 LTE 통신을 위한 해상 위성통신 용량 확대 ▲KT SAT과 협업한 통신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해상안전솔루션 개발 등이다.

위성 LTE SOS 기지국을 선박에 설치하면 KT SAT의 무궁화위성으로부터 통신신호를 받아 반경 10㎞의 선박들은 통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존 선내 통신만 가능했던 위성 LTE를 개선한 것이다. 위성 LTE SOS 기지국은 위성 안테나로 수신한 위성 신호를 LTE 신호로 변환해 넓은 해상 지역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KT SAT의 위성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성을 이용하지만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기존에 사용중인 요금제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위성 LTE SOS 기지국이 KT SAT 무궁화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LTE로 변경하여 반경 10km내 선박들에 전달하면 원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

KT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까지 총 21척의 어업지도선에 기지국 설치를 끝마쳐 선박들이 먼 바다에서도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해상안전통신망 구축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IoT 기술과 첨단 드론 등을 활용한 해상안전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솔루션은 구명조끼에 부착된 각종 통신 장비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KT는 IoT 기술과 드론을 이용해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전송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범 적용을 통해 효용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KT의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은 “KT는 그 동안 해상에서의 통신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번 위성 LTE SOS 기지국은 민관이 해상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대표적인 협력사례라고 보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안전 실현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카카오 ‘김기사’ 직접 운영… O2O 사업 탄력

록앤올과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일부 인력 카카오사무실 합류

카카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김기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한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각종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고 품질을 강화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김기사 국내 사업 인수를 위해 자회사인 록앤올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카카오는 올 5월 록앤올의 지분 100%를 626억원에 인수,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카카오는 계약에 따른 사업양수도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내년 1월 8일부터 김기사의 국내 사업 관련 영업과 기획, 고객서비스 등 전반을 전담한다.

인수 후에도 기존 경영진 체제로 독립 운영돼 온 록앤올은 사업 운영권이 카카오에 귀속되고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김기사 국내 사업을 이끌어온 록앤올의 인력은 카카오 판교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O2O 서비스들의 기반을 다지고 더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투자와 운영으로 김기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카카오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문경 기자

한컴,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유럽 PDF 솔루션 기업 인수

한글과컴퓨터(한컴)는 벨기에의 기업용 PDF 솔루션 기업 아이텍스트를 자회사인 씽크프리 NV를 통해 인수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텍스트는 PDF 문서 생성·변환 솔루션 전문 소프트웨어(SW)기업으로 기업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과 웹브라우저 콘텐츠를 PDF 문서로 생성하고 가공하는 SW 원천기술을 보유했다.

현재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3000여 정부와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딜로이트컨설팅이 선정한 ‘2015년 첨단 기술분야 50대 고속성장기업’에서 벨기에 기업 중 1위를 차지한 기술 선도기업이기도 하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컴은 아이텍스트의 높은 인지도와 고객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한컴은 아이텍스트가 보유한 서버 기반의 PDF 문서 관련 기술을 활용해 공동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솔루션 업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이통·교통·할인 결합 ‘선불 유심카드’ 첫 선

SK주식회사 C&C

외국인 관광편의성 향상

SK주식회사 C&C는 한 장의 카드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물론, 교통카드 기능과 유통매장에서의 결제·할인이 가능한 티머니 카드 등을 결합한 ‘복합 선불 유심(USIM)카드’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K주식회사 C&C는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차별화된 선불 유심 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합 선불 유심 카드는 한 장의 카드를 반으로 나눠, 한 쪽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선불 유심 카드를 담고, 다른 한 쪽에는 선불 교통카드 혹은 선불 쇼핑 할인카드를 담았다.

방한 외국인은 본인의 주 사용 목적에 맞는 카드를 선별 구입후 카드를 반으로 잘라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되고, 쇼핑 할인을 원할 경우 ‘선불+할인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기존 교통카드나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와 동일하다.

/정문경 기자

“인생 2막 설계, 재무준비는 필수… 3중 연금 활용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100세 시대 자산관리 릴레이 인터뷰

신한금융투자 NEO50

김 현 기 연구소장

“은퇴는 ‘제2의 인생’ ‘명함이 있는 노후’를 디자인하라”

“재무와 비재무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은퇴설계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기 소장이 말하는 ‘노후준비법’이다.

김 소장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은퇴 후 수명은 과거 10년 안팎에서 크게 늘어 30년을 웃돌게 됐다”며 “이제 ‘은퇴’란 말은 ‘인생의 남은 시간’이 아닌 ‘제2의 인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 “빚 관리만 잘해도 50%는 해결”

김 소장은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돈’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무적 노후준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수준에 따라 ▲2000년대 이전 금리 10% 이상의 시대는 ‘저축의 시대’ ▲2000년 이후 금리 3~10% 시기는 ‘투자의 시대’ ▲2013년부터 현재 금리 3% 이하 저금리 시대를 ‘지키는 시대’로 나누고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잡고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빚 관리만 잘해도 재무설계의 50%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산업화 시대와 함께 고성장을 경험한 이들이 소비에 익숙해져 ‘빚’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지만 저성장 시기에 와서도 소비습관을 그대로 간직해 자산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초저금리시대는 디플레이션 환경에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선행학습’을 통해 절약해 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투자를 하되 매도를 염두에 둬라”

절약과 검소를 갖췄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다. 김 소장은 금융투자상품이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에 임하라고 했다.

그는 “흔히들 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롱숏 헤지펀드, 일부 해외 채권 등을 말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은 사실 ‘고위험·중수익’에 가깝다”며 “이들 상품 대부분이 수익은 제한되지만 손실 구간은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고성장기에 전문가들이 ‘시장에 머물러라, 장기 투자하라’고 조언한 방법이 먹혔다면 이제는 투자를 하되 ‘매도를 염두에 둔 매수’전략이 유효하다”며 “기회와 위험을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매수’와 ‘매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3층 자산관리부터 시작하라”

‘금융교육’은 다름 아닌 ‘돈에 대한 습관과 태도 교육’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의 기본값(default value)’을 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소장은 “금융의 기본 값은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제도를 활용한 자산관리를 무조건 실천하고, 이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결정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해 운용에 직접 참여한다. 이때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재구성) 능력이 실패를 좌우하게 된다.

김 소장은 “근로자 스스로 이같은 능력이 부족하다면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매수-운용-출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직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연금 등 은퇴자산 관련 펀드가 늘면서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되는 ‘자산배분형 재간접펀드’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자산배분형 재간접펀드는 시황에 따라 유망 투자지역과 펀드유형을 분석해 자산배분을 달리하고 이에 맞는 국내외 우수펀드를 편입,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재무적 설계, 비재무적 설계와 병행돼야”

김 소장은 은퇴설계는 건강, 사랑, 취미, 웰 다잉(well-dying) 등 비재무적 노후준비 또한 자산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재무적 노후준비 중 하나로 자신의 책 ‘명함이 있는 노후’에서 “명함 있는 노후생활을 디자인하라”고 소개한 바 있다.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역할’과 ‘호칭’이 노후에 주어지는 30여년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김 소장은 “지금과 같은 장수시대에선 3층 자산관리와 함께 인생 2막을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일주에 도전하는 ○○○’, ‘귀농귀촌 연구소장 ○○○’ 등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어 노후 삶의 질을 높여보라”고 권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신한금융그룹 한동우 회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각 그룹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특강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한동우의 ‘따뜻한 금융론’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 ‘신입사원’에 특강

신한금융그룹 한동우 회장이 8일 신한은행연수원에서 그룹 신입사원 406명에게 특별강연을 했다. 한 회장은 특강을 통해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전했다.

이날 한 회장은 “기업문화는 그 기업의 색깔이고 신한도 고유의 ‘신한문화’가 있다”며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잘 살리면서 그 기본 가치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금융인으로서 신한인이 추구하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고객과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에서 업에 대한 보람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생 선배로서 한 회장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하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실력을 키워라 ▲인생에서 만난 상대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등의 내용을 당부했다.

특강을 마친 한 회장은 신입사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연수생 각자가 신한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스토리와 동료와의 소중한 추억 등을 채워나가라는 의미로 디지털 액자를 선물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각 그룹사에서 채용한 신입사원 40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박5일간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그룹 신입사원 공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한금융그룹과 은행업, 카드업 등 각 자회사의 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한의 가치 체계를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룹 공동연수가 끝나면 각 그룹사별 특성에 맞는 개별 연수가 4주~10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임종룡 “핀테크 맞는 다양한 인증제도 도입”

〈금융위원장〉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 점검’ 회의 국민 66.3% 인지·이용자 74.2% 만족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행의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핀테크 기업, 정부 부처, 업권별 협회, 유관 기관 등 3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관련해,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포괄적 동의는 최대 유효기간 5년으로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했고,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KDB, 세계3위 PF시장 노크… 호주 시드니에 사무소

KDB산업은행은 8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강국인 호주 시드니에 사무소를 열었다.

산은에 따르면 호주는 강점 분야인 광산업과 금융업을 기반으로 미국, 인도와 함께 세계 최대 PF 시장을 가진 국가다.

해외 블루오션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있어 영업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지방정부 추진 민영화 사업 등 다양한 PF건들이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5개 프로젝트에 호주달러(AUD) 6억불을 주선했다.

KDB 시드니사무소 개소식.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수십년의 해외 투자금융 노하우를 가진 은행으로 호주 PF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시드니사무소를 전초기지로 삼아 거대 호주 PF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JY의 3000억… 투자자 우려 녹인 '신의 한 수'

사재 투입해 성공 가능성 높아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져

삼성엔지니어링이 연말 증시의 주인공이 됐다.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단의 사재 투입 카드를 꺼내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를 단번에 잠재운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동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여파 탓에 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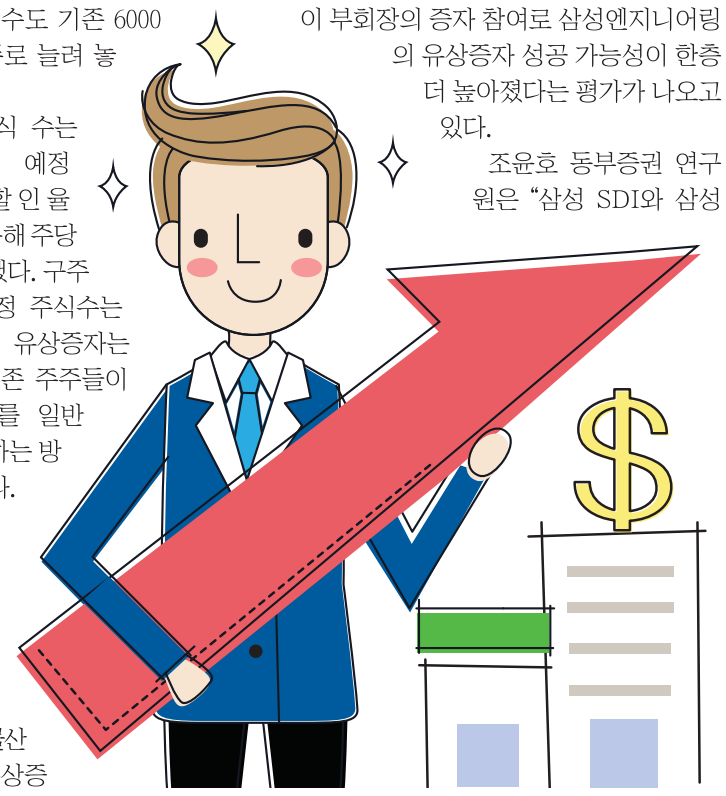
◆이재용 '사재 투입' 카드에 주가 급등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보다 13.98% 급등한 1만5900원에 마감했다.

기업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가능 주식수도 기존 6000만주에서 3억주로 늘려 놓았다.

신주발행 주식 수는 1억5600만주로, 예정 발행가는 할인율(15%) 등을 적용해 주당 7700원으로 정했다. 구주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3.3751657주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기존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일이다.



이에 따라 1대 주주 삼성SDI(지분 13.1%)와 2대 주주 삼성물산(7.8%)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최대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의 증자 참여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삼성 SDI와 삼성물산, 우리사주조합(20%), 이 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를 가정하면 유상증자 물량의 약 66%를 확보하게 된다"며 "이 부회장의 사재 투입으로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변성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부회장이 실권주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삼성그룹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는 크게 희석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약속으로 재무적 안정성은 빨리 회복되겠지만 기업가치 추정과 주가 예측에는 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선택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증자 참여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8월11일 기준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3.97%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13.10%)와 삼성물산(7.81%)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보유 지분을 제외하면 단연 '큰손' 주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억원(20%)까지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연금이 증자에 불참하면 삼성엔지니어링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일단 개별 투자 종목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에 관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정은 '기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참여하는 게 맞다"면서 "손실 우려와 예상되는 비난 여론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과 정부의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갈등을 빚다가 잇달아 교체되는 등 인사 내분에 휩싸인 바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 인터넷뱅킹 고객 '2천만' 찍었다

KB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인터넷뱅킹 고객 2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1999년 7월 인터넷뱅킹을 출시한 이래 16년만의 성과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후 2003년 모바일뱅킹, 2006년 TV뱅킹, 2010년 스마트뱅킹(KB스타뱅킹)을 선보이며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KB스타뱅킹도 지난 4월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가입고객 1000만명을 넘었다.

사용자 중심의 안전한 시스템을 만든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해 이용PC지정서비스, 보안SMS서비스,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 피싱방지개인화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앞서 7월에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핀테크(금융+정보기술)를 접목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인 '스마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내놨다. 모바일뱅킹을 할 때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스마트 OTP 카드를 갖다 대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모바일뱅킹을 할 때마다 일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의 토큰형 OTP보다 간편하고 배터리 교체도 필요없다.

최근에는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사용자 환경 구축을 위해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인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동시에 개편했다.

KB스타뱅킹은 화면 전환 속도를 개선하고 기기별 해상도를 최적화 시켰다.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앱 용량을 4분의 1 이상 줄여 기존보다 처리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 KB스타뱅킹 하단에는 피싱방지 이미지를 배치했다.

피싱방지 이미지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 실행 내내 해당 이미지가 보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이 피싱앱인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보안등급 수준', '최근 접속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고객이 보안상태와 앱 이용시간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뱅킹 메인화면에는 전문성있는 재테크 정보와 금융이슈를 보여주고, 전문가 칼럼과 금융사고 예방 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김문호 기자

코스피 하락… 1950선 무너져 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1950선을 내줬다. 국제유가 급락과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63포인트(0.75%) 내린 1949.04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4원 상승(원화값 하락)한 1178.6원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국내IB, 역량 키우기 위한 노력 필요"

>> 1면에서 계속

국내 대형 M&A 중개시장이 외국계 IB 독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정도는 아니었다.

초대형 거래는 외국계 IB가, 중형 M&A는 국내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주도해 왔다. 또 국경 간(Cross-border)과 해외사업 중심의 국내 기업 딜은 외국계가, 국내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딜은 국내 IB가 맡았다. 어느 정도 경계선이 존재했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정보력과 자금력의 차이가 아니란 지적이 많다. 실제 올해 메가딜로 꼽히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SK C&C와 SK의 합병 모두 주요 사업이 국내 시장 중심이다. 또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보유를 늘렸고,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자본 조달력도 큰 문제는 아니다.

◆ "IB부문 경쟁력 확보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 사업중심의 M&A를 할 때도 외국계 IB를 선호하는 이유는 질적인 측면의 차이로 판단한다"면서 "국내 증권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IB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근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성학 연구원은 "자본력이 뒷받침 되는 대형 금융사는 제휴를 통한 글로벌 M&A 참여·M&A 관련 인력 육성 등 IB 부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띠끄 회사와 제휴를 통해 글로벌 M&A시장에서 노하우와 평판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자문·투자 자문 등 인적자본 중심의 사업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젊은 층 몰린 '19조 시장'에 투자 관심을

⓱ 화장품 시장에 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바람

참신·세련된 브랜드로 이미지 어필
중국·미국 등 해외시장도 확장키로

올 한해는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활약이 눈부셨다.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시장 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채널의 성장 등 화장품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참신하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카테고리 및 지역 다변화로 본격적인 해외 확장기에 진입해 내년에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내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올해 대비 8.5% 성장한 1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방한 중국인들이 연평균 15%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인바운드 화장품 소비 규모는 내년 5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3선 도시의 소비 확대와 화장품 카테고리 다변화로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원화 기준 약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채널별로는 중국 내 백화점 채널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된 반면, 특히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인터넷과 전문판매점 등 중저가 채널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진입 성과도 기대된다. 미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2%에 불과하지만, 75조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성숙 시장이지만 쿠션 파운데이션 등 니치마켓에서 한국 화장품의 차별화된 강점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 소매유통업체들의 한국 화장품 취급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미국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말 차익실현 및 업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4·4분기에는 중국 관광객 수 증가로 화장품 업종 주가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이라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양지혜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1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 싸고 4개 고속도 교차… 서울 출퇴근 '안성' 맞춤

경기도 안성 핫플레이스 부상
물류단지·쇼핑몰 줄지어 입점
개발 호재 잇따라 시세차익도

경기도 안성 주택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전셋값 등 주거비용이 치솟는 서울을 벗어나려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으로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다. 안성은 18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07곳에 이른다. 2013년 밀폐용기 제작기업 락앤락이 18만5000㎡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동 중이며 지난해 6월에는 안성 원곡면에 홈플러스 안성물류서비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체면적이 15만3000㎡, 고용 유발효과가 1700여 명에 이른다.

◆눈길 쏠리는 경기 안성

올해 6월에는 독일 BMW사가 조일리산업단지 일대에 전체면적 8만㎡의 BMW 부품보관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600여 명, 연간 매출 6100억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몰도 문을 열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까지 4000억을 들여 안성 진사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운다.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전시관, 키즈테마파크, 아쿠아랜드, 스포츠전문관 등으로 꾸며진다. 쇼핑몰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4000여명, 생산유발 7600억원, 부가가치 4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성 죽산면에서는 콘도미니엄, 캠핑장,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워터파크, 골프장(9홀) 등이 들어서는 전체면적 146만 8000㎡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말 착공,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어서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성터미널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에서 안성터미널까지 연결(총 연장 32.5㎞)하는 평택~안성선이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2013년 이후 2년 만에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각종 호재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 전체 전세가율(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평균 70%를 웃돌고 있으며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성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은 117%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매매가가 148%, 전세가 217% 등 크게 증가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전문위원은 "전국 전세가율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평균 전세가율 80%에 육박하는 지역은 본격적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단지 관심 고조

대우건설이 오는 23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안성 푸르지오 사전 홍보관에 평균 100통 가량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6~23층 10개동 전용면적 59·74㎡ 759가구 규모다. 주택유형별로 전용 59㎡ 455가구, 전용 74㎡ 304가구다.

안성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외 진출입이 용이하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뒤에는 비봉산, 단지 앞에는 안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조건도 갖췄다. 전세대 남향위주로 구성됐으며 보조주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주방 펜트리공간 등이 특화설계됐다. 단지 내 조경면적비율은 30%이상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 선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안성 푸르지오 분양 관계자는 "지역 내 높은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 등 1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지역 이전수요까지 맞물려 분양이전부터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일반주거지, 빵·떡 공장 증축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설립규제 완화
면적 500㎡ 미만→ 1000㎡ 미만
공장 확장시 '합산 건폐율' 적용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전체면적 1000㎡ 미만 빵·떡 공장 증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체면적 500㎡ 미만일 때만 빵·떡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이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과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처럼 합산해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폐율이 최대 20%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2020년 7월 1일 최초 상실)되도록 한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말일까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박상길 기자

우리집에도 사물인터넷 설치해볼까

스마트폰 앱 'e마을' 눈길
관리비 공지 등 기능 넣어
내년 종로 등 대대적 보급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위치, 엘리베이터·택배 호출 등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IoT(사물인터넷) 아파트를 꿈꿔봤을 것이다. 이를 해결해 줄 스마트폰 앱 'e마을'이 나와 주목된다.

e마을은 올해 출시돼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등에 보급된 아파트 입주민용 스마트폰 앱이다.

앱 개발자인 유호철 자하스마트 대표는 "경찰이 아파트 비리와의 100일 전쟁을 선포할 만큼 아파트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 e마을에 자기 세대 관리비나 공지사항, 투표 등 기능들을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스마트는 앱 출시에 앞서 지난 7월 6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편리한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민이 42.2%로 가장 높았고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32.7% ▲범죄·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23.1% ▲기타 2.0% 순으로 집계됐다.

자하스마트는 이에 스마트폰과 비콘 카드만 있으면 출입, 층간소음, 보안, 안전이 모두 해결되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IoT(사물인터넷) 앱을 만들게 됐다.

e마을은 내년 서초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10여 개가 넘는 자치구에서 대대적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11일 이틀간 서울시청사에서 열리는 '2015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통해 e마을에 포함된 전자투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박상길 기자

충주 3차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충주 3차 푸르지오' 11일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이 오는 11일 '충주 3차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 172-1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충주 3차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8개동, 47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세대가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된다. 단지 인근에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가 인접해 있다. 또한 금봉대로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충주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3.3㎡ 당 평균분양가는 75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4월이다.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344번지에 마련된다.

/박상길 기자

GS건설, 미스코리아와 김장김치 나눔봉사

GS건설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미스코리아와 함께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미스코리아 본선 수상자 모임인 미코리더스 회원 10명과 GS건설 임직원·임직원 가족 110여 명이 동참했다. 임직원 가족과 미코리더스 회원들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GS건설

편의점 '도시락 열풍' 짭짤… SSM '규제 급제동'

〈기업형 슈퍼마켓〉

2015년 유통업계 결산 〈下〉 편의점·SSM

편의점

담뱃값 인상으로 영업익 대폭 개선
도시락 시장 높은 성장 유지 전망

SSM

출점제한으로 일부 기업 손실에도
온라인 강화로 실적 개선 목표

최근의 유통채널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오프라인 채널임에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을 찾는 고객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인상된 담뱃값으로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에도 편의점 업계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 출점이 제한되면서 일부 기업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편의점 나홀로 '승승장구'

담뱃값 인상이 편의점업계의 구원투수가 됐다. 당초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소비 감소가 우려됐지만 이미 지난 7월 기준으로 담배 판매량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편의점 빅3 CU, GS25, 세븐일레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CU의 경우는 2분기, 3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0%, 23.5%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다. 지난 9월 동부증권은 CU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2830억원과 2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2%, 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GS리테일은 2분기, 3분기 각각 65%, 41%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였으며 세븐일레븐도 비슷한 증가폭을 기록했다.

온라인 마켓이 '배송전쟁'에 돌입했다면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 전쟁'이 한창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전체 가구의 9.0%를 차지했던 1인가구는 올해 27.1%까지 늘 전망이다. 특히 젊은층의 1인 가구 세대가 간편한 편의점 도시락을 선호하며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편의점 3사는 앞 다퉈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CU는 올해만 22종의 도시락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현재 17종을 운영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도시락 매출신장률은 전년대비 46%다.

세븐일레븐도 총 14종의 도시락을 운영중이며 전년대비 매출신장률은 2배 가까운 89.4%에 달한다. GS25의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53.9%다.

황우연 세븐일레븐 푸드팀장은 "현재의 일본 도시락 시장을 만든 1인가구, 워킹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통계와 소비 트렌드로 미루어 볼 때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을 찾는 고객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메르스 영향에도 편의점 업계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편의점 차별화도 시도 중이다. BGF리테일은 인터넷은행 전용 편의점을 선보였다.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고객들이 언제라도 편의점을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하는 모델이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카페' 편의점 모델을 선보였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도시락과 커피를 카페처럼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 모델이다.

◆규제에 발목 잡힌 SSM

SSM업계는 올해도 계속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메르스라는 이중고를 만나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 지속되는 SSM 업계 실적악화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슈퍼는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7.3%의 영업이익 감소를 보였다. 1~3분기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40.5%다.

신세계그룹의 SSM 계열사 이마트에브리데이의 3분기 영업이익 역시 3억원으로 전년 6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익악화의 주요 배경은 메르스 여파와 내수경기 침체, 규제에 의한 신규출점 제한 등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인근 1㎞내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금지하고 있다.

4분기에도 SSM의 실적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SSM매출은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정부의 내수경기 회복 정책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SSM업계에서 이러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강화와 매장차별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롯데슈퍼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슈퍼 온라인몰의 올해 매출 신장률은 약 40%에 달한다. 매출 비중은 전체의 2%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년 전부터는 모바일 강화도 시작해 현재 온라인 매출의 70%를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존 이마트에 진열된 피코크, 노브랜드 등의 PB상품 진열을 시작하며 수익개선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골목상권 침해 논란때문에 할인행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할인폭도 대형마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여러모로 힘들지만 온라인 강화, 배송, 상품 재구성 등의 전략으로 내년도 실적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SK II

'피테라 에센스' 광고글 소비자 이용후기로 둔갑

한국P&G가 SK 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성 후기를 실제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 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광고했다. 피부 고민 상담이나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 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는 식의 답변을 올려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을 했던 것.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하는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줬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P&G측은 "내부 심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광고성 바이럴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심의 이전 발생한 문제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써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현희 기자

롯데하이마트, 노사함께 취약계층에 연탄 5만장 전달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는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연탄 5만장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백사마을 주민 250가구에 전달된 연탄은 롯데하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 노동조합이 함께 마련했다. 이 날 봉사는 이동우 대표를 포함한 롯데하이마트 임직원 봉사단 25명과 권익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조합원 15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사진 오른쪽 첫 번째)와 권익재 롯데하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들이 연탄 전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아모레퍼시피그룹 임원인사

사장직 신설하고 조직개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내년 1월 1일자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명단 17면〉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임 사장에 배동현(60·사진) 부사장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그룹에는 사장직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됐다.

배 신임 사장은 1981년 입사해 아모레퍼시픽 전신인 태평양 재경 담당 상무를 거쳐 아모레퍼시픽 기획재경부문 부사장, 지원총괄 부사장, 경영지원 유닛(Unit)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임 상무(AP 차이나 이니스프리 디비전)에 필리포 차이 씨가, 아모레퍼시픽 신임 부사장에는 강병도(56) 전무가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조직 개편을 통해 그룹 직속으로 운영되던 마케팅전략 유닛(Unit)을 사업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직속으로 이동시켰다. 또 이니스프리에 사업지원 디비전(Division)을 신설해 인사, 재무, 총무 기능을 통합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통해 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진작하고, 각각의 조직이 가진 핵심 역량에 보다 집중해 글로벌 뷰티 시장을 이끄는 '원대한 기업'이라는 그룹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새로 나왔어요

밀레

전문 산악인 겨냥 '알파인 다운'

밀레가 산악구조대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파인 다운(사진)'을 출시했다.

알파인 다운은 밀레가 전문 산악활동을 즐기는 마니아들을 겨냥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레스큐 시리즈'의 대표 제품이다. 조난자를 수색하고 인명을 구하는 마운틴 레스큐(Mountain Rescue) 콘셉트인 만큼, 구조대를 상징하는 와펜과 쉽게 눈에 띄는 강렬한 색상, 바이어스 라인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은 59만 9000원. /유현희 기자

K2

신학기 맞아 초등생용 가방 선보여

K2가 2016 새학기를 앞두고 초등학생 책가방 2종 '사파이어 키즈 백팩', '토파즈 키즈 백팩(사진)'과 보조가방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사파이어 키즈 백팩'과 '토파즈 키즈 백팩'은 K2가 독자 개발한 브리드 360(Breathe 360)' 기술을 등판에 적용했다. 상하좌우에 뚫려있는 윈드 터널을 통해 착용 시 발생하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상쾌한 공기가 내부로 순환되는 것이 브리드360의 특징이다. 가격은 각각 11만 8000원, 10만 9000원. 백팩 2종과 함께 출시한 '사파이어 키즈 보조가방'와 '토파즈 키즈 보조가방'은 각각 4만2000원, 3만9000원.

/유현희 기자

뚜레쥬르

크리스마스케이크 45종 출시

뚜레쥬르가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 45종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트리와 산타 등 크리스마스 상징물을 형상화한 다채로운 케이크와 롤케이크, 선물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뚜레쥬르의 2015 크리스마스 콘셉트는 따뜻한 연말 가족·친지들과 행복한 파티를 즐긴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케이크 가격은 1만6000원에서 3만원 대다. /유현희 기자

대체에너지 개발·오염물질 제거·실내공기 개선·플랜카드 재활용…

친환경 그린칼라 사업 '불황 무풍'

반딧불이·닥터빈·아이쿱생협 등

이현우(46)씨는 매일 아침 짙은 초록색 셔츠를 챙겨 입는다.

그가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 브랜드 '반딧불이' 원주점을 대표하는 사장이자 직원으로, 직접 고객을 찾아 실내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고객이 요청한 곳으로 직접 가서 화학물질 오염 정도를 측정한 후 그에 맞는 시공을 진행한다.

HCHO(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성물질을 중화 시키고 오존을 통해 이를 완전히 분해해 세균물질을 산화시키는 작업이다. 작업이 끝나면 전문 기기로 잔존물질을 처리하는 공기 세정을 실시한다.

시공이 끝나면 사후측정을 통해 시공 효과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시켜준다. 화학물질로 가득한 새집부터 거대한 빌딩까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즉시 달려간다. 반딧불이 본사에서 10년 간 쌓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한 시공 매뉴얼과 교육 지원을 꼼꼼히 익힌 덕분이다.

이 씨의 초록색 셔츠에 달린 깃, 즉 '그린칼라'는 새로 등장한 직업군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에 이은 제 3의 직업군으로 불리는 그린칼라는 환경과 자연, 나아가 건강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수행하는 산업군을 통칭한다.

실내환경관리브랜드 '반딧불이'의 빌딩증후군 시공 현장. /반딧불이

사무실·가정 공기 개선하고 재활용 제품·친환경 먹거리도 포함
제3 직업군·그린 잡 별명… 고용정보원 '10년내 유망직종' 선정

그린칼라는 '그린잡'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대개 환경이나 천연자원에 이득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직업과 자원을 덜 쓰고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인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자, 환경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한다. 이와 같은 그린칼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소비 시장에서는 '윤리적 소비'와 같은 개념이 자리잡으면서 그린칼라도 부상하고 있다. 아이쿱생협과 같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파는 곳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고 패션 브랜드에서는 트럭 덮개천, 안전벨트, 폐타이어 등을 패션 상품의 원자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트렌드가 창업 시장에서는 친환경인 생활 환경을 가꾸는 일로 변환되고 있다.

친환경 생활기업 닥터빈이 시행하는 '에코홈케어' 서비스도 그린창업 대표 아이템이다. 에코홈케어 서비스는 실내 환경성 질환의 주범인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문제를 집중 케어한다. 100%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에코 천연 용액을 활용해 세균 박멸과 공기질 관리 등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가 모토다. 용액 살포를 통해 집먼지 진드기 케어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집진을 통해 공기의 질을 높인다.

닥터빈은 에코홈케어 서비스의 특장점을 인정받아 환경부 후원 새집증후군 진단·개선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대기업 분양 아파트와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40개소에 에코홈케어 서비스도 실시했다.

닥터빈 최혁승 대표는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에 대한 케어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윤리와 실제 창업 시장에서의 효용성을 한번에 잡은 아이템인 만큼 그린칼라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소자본창업 대세는 '외식'… 추천 아이템은?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무엇일까. 정답은 외식업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준비생 1975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28.8%·복수응답)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카페와 베이커리'(26.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럼 외식업 창업시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리스크 최소화다.

이를 위해선 투자대비 효과가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면 좋다.

카페마노는 생두 수입에서 로스팅까지 본사가 직접 책임진다. 이로 인해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도 가맹점주의 마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카페마노의 원두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 샌드위치와 원두 아메리카노를 함께 구매해도 3900원으로 저렴하다. 창업 매장 기준은 66㎡(20평) 이하다. 숍인숍 개념의 테이크아웃 매장도 운영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김밥전문점 로봇김밥은 현미와 잡곡을 이용해 만든 김밥을 선보이면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봇김밥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원재료와 채소를 듬뿍 넣어 한 줄로도 5대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아울러 전문주방장이 필요없는 시스템도 갖췄다.

닭강정 브랜드 가마로강정도 전통방식 가마솥을 이용한 요리법으로 인기다. 쌀가루 파우더를 사용해 식감도 바삭하다. 가마로강정은 교육시스템이 뛰어나 초보 창업자라도 쉽게 매장 운영에 적응할 수 있다.

아주 싼가격 **카페마노**
주방장 없는 **로봇김밥**
철저한 교육 **가마로강정**
요리사 지원 **요리마시따**
치킨 + 주류 **치킨퐁**

아메리카노 한잔에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카페마노.

소자본 외에 독특한 창업을 하고 싶다면 철판요리전문점 요리마시따도 눈여겨 볼만 하다. 본사에서 철판전문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요리사를 지원해 줘 부담이 적다.

치킨과 주류를 결합한 치킨퐁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메뉴로 기존 치킨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고객들이 원하는 치킨, 피자, 소시지 등 다양한 메뉴를 한 매장에서 제공한다.

이상헌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장은 "경기불황에는 창업자금이 덜 드는 소자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가맹본사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현희 기자

온열암치료학술대회 마무리
의사·의료진 250여명 참석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2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송창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국소 온열치료는 종양조직 내의 산소 분압을 상승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또한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등 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한 연세대 교수는 "온열암 치료가 암세포의 세포자살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암 치료에 있어서 온열암 치료가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치관화 대만 양밍국립대학 교수(대만 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는 "온열치료장비는 암세포들의 세포간 교신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열단백질의 발현, 세포자살의 증가나 세포독성 항원특이성 T-세포의 증가 등 암 면역 반응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상승시켰다"며 "전임상 시험에서 수지상세포요법의 암 치료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리아 '모짜렐라' 감사 이벤트

롯데리아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점에서 고품질 자연산 치즈를 활용한 햄버거 '모짜렐라인 더 버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인기에 보답하고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창업단신

▲ '오늘통닭' 사업설명회

옛날식 통닭 프랜차이즈 '오늘통닭'이 10일 3시 오늘통닭 신촌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늘통닭 사업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치킨 창업 시장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오늘통닭 브랜드 경쟁력 및 창업 비용까지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080-999-1977

▲ '남와집' 올해 말까지 가맹비 면제

냄비철판요리 전문점 '남와집'이 올해 말까지 신규 계약자에 한해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남와집은 부대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한식 메뉴를 내세워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가맹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참 좋은 행복 건강벨트 출시

참 좋은 행복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참좋은행복벨트'를 내놨다. '참좋은행복벨트'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원적외선과 고농축 게르마늄을 방출시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한다.

▲ 본사랑, 행복나눔 바자회

본죽의 사회공헌재단 본사랑이 8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본사랑 건물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을 위한 '제6회 행복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 봉구비어, 어린이 소원들어주기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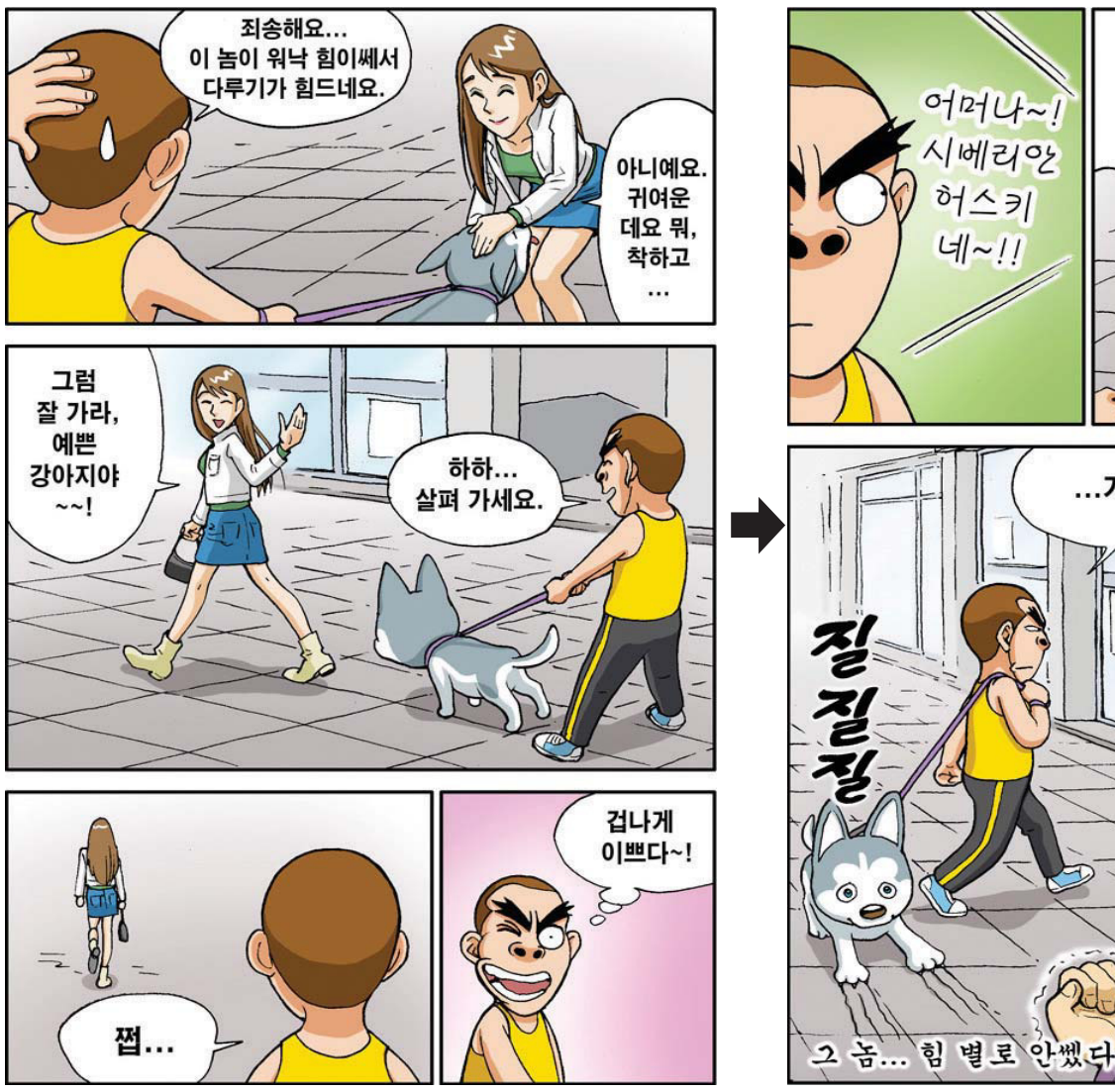
봉구비어가 연말연시 이웃에게 따듯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소원 들어주기' 모금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부산에 위치한 각 매장에는 '소원 들어주기' 모금함이 설치되며,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새 학기 물품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도신도시 쉐라톤 인천 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으로 확대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이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로 브랜드가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쉐라톤은 세계적인 호텔 경영 브랜드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에서 가장 비중과 규모가 큰 브랜드이며, '쉐라톤 그랜드' 명칭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차별화되는 호텔에만 부여된다.

쉐라톤 그랜드 인천의 총지배인 리차드 수터는 "스타우드에서 2017년까지 100개의 쉐라톤 그랜드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약 10여개의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 더해 '그랜드' 명칭을 새롭게 추가하는 첫 번째 호텔들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7	1	4	5	6	3	8	9
4	3	5	9	8	1	7	6	2
9	6	8	2	7	3	5	4	1
8	9	4	1	6	3	2	5	7
3	1	2	5	4	7	9	8	6
7	5	6	8	2	9	4	1	3
6	4	9	3	1	8	5	7	2
1	5	7	6	9	2	8	3	4
8	2	3	7	4	5	6	9	1

6	9	2	3	4	5	7	1	8
8	4	3	9	1	7	2	6	5
5	1	7	6	2	8	9	4	3
4	3	5	7	9	6	1	8	2
1	7	8	5	3	2	6	9	4
2	6	9	4	8	1	3	5	7
9	5	4	2	6	3	8	7	1
3	8	6	1	7	9	5	2	4
7	2	1	8	5	4	6	3	9

2	7	1						
	3						6	
9						7	2	3
8					3			
	1		5		7		8	
			8					9
6	4	9						7
	5						4	
						8	3	5

6				4	5		1	
8			9					5
		7					4	
				9	6			
1				8				2
			7	3				
	2					7		
9					1			8
	8		2	6				9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유학 중인 아들의 진로가 고민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환경 따르면 무엇을 하든 보람

sy1025 남자 98년 12월 18일 음력 유시

Q 아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올 3월에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외국어 한 가지라도 확실히 배우고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선생님께서는 언어 쪽으로 뛰어나다고 중국에 있는 대학 아무 곳이나 영문과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외교관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듯 한데 아들이 그리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이과 쪽으로도 잘해주었으면 하는데 아들은 자꾸 어려운 건 도전 하지를 않습니다.

욕심 좀 부려보라고 하여도 자기가 생각한 선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대학을 가야하는 데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A 팔자에서 아드님은 정해일(丁亥日)에 태어났다고 표기됩니다. 고서(古書)에 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인터넷에서 있는데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성품이 유순하고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무쌍하니 보기에 변덕스럽게 보여 질수도 있다. 달빛이 물에 빛나는 모습과 같아 인기와 명예를 이루게 되므로 지도적인 위치에서 인생의 삶을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지속성과 저돌성이 부족하므로 그로 인하여 매사를 더디게 끌고 가는 수도 있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함을 지니고 활동하나 가끔씩 변덕을 부려 남에게 또는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만인으로부터 적당한 혜택을 입으니 부모덕도 대체로 원만할 것을 의미한다. 재물에 관한 문제나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부모의 기운이 적당하다. 학업 운은 인내 노력이 처음에는 실력 발휘가 저조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성공할 것을 의미하므로 학마가 있더라도 뒤에 편입이나 늦게 시험을 쳐서 자존심을 되찾게 된다. 변화가 많은 성품으로 직업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이과 쪽이 자신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아예 포기한다고 봅니다. 전쟁터에서 필히 지켜야 할 것이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고 했고 역(易)에서 순리를 따르면 자기에게 알맞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팔자를 알면 운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화(丁火)사주가 일귀(日貴: 생일지에 귀인을 두고 있는 길명)에 부모궁에 덕이 있고 자식궁에도 귀인(貴人)상을 두었으니 좋은 사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9일 (음 10월 2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끝까지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60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날 도와주려 합니다. 72년생 의심가는 일은 손대지 마세요. 84년생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소 49년생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61년생 좋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3년생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합니다. 85년생 사람을 믿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사업은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됩니다. 62년생 일에 두서가 없습니다. 74년생 처음에 순조롭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86년생 능력을 인정 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63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릴 때입니다. 75년생 전공이 아닌 일은 되도록 삼가세요. 87년생 원하는 곳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64년생 일이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할 것입니다. 76년생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습니다. 88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남에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65년생 허황된 꿈을 꾸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7년생 본인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89년생 일상을 탈출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말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양 55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7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9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심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금전운은 불리합니다. 68년생 질병 운전,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92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닭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개 58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70년생 남방이 길방입니다. 82년생 자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94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입니다.

돼지 59년생 오래전 병이 발병 할 수 있습니다. 71년생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83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납니다.

사랑.생명.신비의 본질을 망각한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에 대한
위트있고 쉬운 고찰. 어려울수있는 철학적 요소들을 아름다운 넘버들과 역동적이고 신나는 안무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환상과 시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야기!
(The Little Prince, 2015) 가족영어뮤지컬
어린왕자
원작: Antoine de Saint-Exupéry 각색/연출: 유용경
2015년 12월
28일(2시)
29일(11시,2시)
30일(11시,2시)
서대문 문화 회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전석_ 이만원, 전화예매 만오천원 02-312-1219 소셜커머스 예매가능 국가 유공자50%, 나라사랑카드50%, 10인이상단체50%
주최/주관_KJmusical company 출연_홍연,신재성,윤소원,김미연,김영노,김기현
스텝_ 연출 유용경 / 음악 감독 손한묵 / 안무 김형근 / 무대미술 푸른숲무대공작소 /의상 박상훈 / 광고,포스터 임성환

일본 대표 감독들, 주말 한국서 만난다

다시 일본영화를 보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차가워진 날씨만큼 차분해지는 마음을 달래기에는 감성적인 일본영화만큼 제격인 것도 없다. 특히 올해는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12월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해와 영화 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이와이 슌지 감독,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배두나와 씨네토크 참석

바닷마을 다이어리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으로 일본영화의 새로운 거장으로 떠오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오는 17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신작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홍보를 위해 12일 한국을 찾는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 가마쿠라에 살고 있는 사치, 요시노, 치카가 15년 전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홀로 남겨진 이복 동생 스즈를 만나면서 겪는 새로운 일상을 담은 작품이다. 제68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또한 올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을 통해 국내에 첫 소개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번 내한 기간 동안 배우 배두나와 함께 씨네토크 행사에 참석한다. 배두나와는 영화 '공기인형'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두 사람의 6년 만의 재회로 영화 팬의 기대가 뜨겁다.

이와이 슌지 감독
기획전 위해 2박 3일 내한

'러브레터' '하나와 앨리스'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이와이 슌지 감독은 오는 10일 아트나인에서 열리는 '이와이 슌지 기획전-당신이 기억하는 첫 설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독보적인 영상미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와이 월드'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이다. 특유의 감성을 담은 작품들로 90년대와 2000년대 청춘을 보냈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기획전은 국내 최초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기존 개봉작과 미개봉작, TV 시리즈를 포함한 12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다. 초기작인 '불꽃놀이 아래서 볼까? 옆에서 볼까?'부터 대표작 '러브레터'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하나와 앨리스', 그리고 국내 미개봉작인 '뱀파이어' '이치카와 곤 이야기' '3.11: 이와이 슌지와 친구들'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하나와 앨리스

브라운아이드소울(위)과 루시드폴. /산타뮤직·안테나뮤직

추운 겨울 녹일 따뜻한 음악

브라운아이드소울·루시드폴 나란히 컴백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음악이 대중 곁을 찾아온다.

4인조 남성 중창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정엽·나얼·영준·성훈)이 8일 자정 정규 4집 앨범 '소울 쿡(Soul Cooke)'을 발표했다. 5년 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이다.

앨범 제목은 '소울을 요리하다'는 뜻인 동시에 소울의 선구자인 샘 쿡(Sam Cooke)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흑인 음악들을 한 앨범에 담겠다는 시도 아래 완성도 높은 17개의 트랙을 수록했다.

타이틀곡은 '밤의 멜로디'와 '홈(Home)'이다. '밤의 멜로디'는 한글 가사로 필리 소울 장르의 느낌을 살렸다. '홈'은 브라운아이드소울 특유의 감성을 담은 곡이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12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 '소울 포 리얼(Soul 4 Real)'을 개최한다.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은 오는 15일 정규 7집 음반 '누군가를 위한'을 발표한다. 직접 쓴 동화 '푸른 연꽃'이 실린 책, 그리고 동화의 사운드트랙 5곡을 포함한 총 15곡을 한 장의 CD로 묶은 이색적인 앨범이다.

루시드폴은 2013년 제주로 이주해 감귤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또한 동네 초등학교에서 약 1년 동안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왔다. 지난 1년여 동안 제주에서 겪은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이번 음반에 깊이 녹아있다.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콘서트도 개최한다.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날인 오는 25일과 26일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홀에서 새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누군가를 위한'을 연다.

/장병호 기자

아이유, 연말은 팬과 함께

30~31일 잠실서 앙코르 콘서트 개최

가수 아이유(사진)가 팬과 연말을 함께 보낸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8일 "아이유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총 2회의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챗셔(CHAT-SHIRE)'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부산 콘서트와 지난 6일 대구 콘서트까지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에서 아이유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미니앨범 '챗셔'의 수록곡 중심으로 라이브 무대를 펼쳤다. 타이틀곡 '스물셋'의 퍼포먼스 무대도 최초로 선보여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확정된 앙코르 콘서트에서는 또 한 번의 스페셜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전국투어의 마지막 개최지인 광주 콘서트를 남겨놓은 아이유가 팬의 열정적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앙코르 콘서트를 결정했다"며 "공연을 통해 2015년 연말을 팬들과 함께 하며 더욱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유의 앙코르 콘서트 티켓 예매는 오는 10일 오후 8시 온라인 티켓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에서 한다.

/장병호 기자

TV 하이라이트

최연소 변호사가 된 유승호

◆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

오후 10시

서진우(유승호)는 고등학교 중퇴 경력이 있는 최연소 변호사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엄마와 형을 떠나보낸 서진우에게는 아버지만이 유일한 혈육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여대생을 살해한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나선다. 법대생과 피자배달부로 이중생활을 하는 이인아(박민영)가 서진우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00 명단공개 (재)		05:20 그래버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50 과속스캔들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백세기획 (재)	07: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07:00 공범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8:3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9:10 좋은아침	07:30 JTBC NEWS 아침 &		(4~6회·재)	08:5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10:00 SBS 뉴스		10:10 현장토크쇼 TAXI (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30 SBS 생활경제	09:00 히든싱어 4 (재)	11:10 풍선껌 (재)	11:5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재)	10:10 집으로 가는 길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10 청담동 스캔들	10:50 최고의 사랑 (재)			
11:00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1:00 내 딸, 금사월 (재)	11:50 SBS 12뉴스	11:5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2:00 KBS 뉴스 12		12:00 MBC 정오뉴스			12:30 풍선껌 (재)		12:40 허비 첫 시동을 걸다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2:20 최고의 연인	12:45 오! 마이 베이비 (재)	13:1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터미네이터 2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00 KBS 뉴스타임	13:3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4:35 JTBC 뉴스 현장	13: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14:40 숨바꼭질
14:00 한국인의 밥상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4:30 내 품에 라비와 친구들	14: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5:20 턱시도	
14:55 안녕 우리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00 MBC 뉴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5:20 응답하라 1988 (재)		16:40 파퍼씨네 펭귄들
15:00 시사기획 창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6:00 고향이 보인다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55 프리파라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10 응답하라 1988 (재)	17:20 빅매치	
16:10 다큐 공감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00 변신자동차 또봇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7:00 MBC 이브닝 뉴스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20 시사진단	17:00 비타민 (재)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5 생방송 투데이	18:20 비정상회담 스페셜			18:30 오토마타
19:00 KBS 뉴스 7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20 돌아온 황금복	19:40 연금복권 520	19:00 집밥 백선생 (재)	19:40 우주전쟁(2005)	
19:30 사람과 사람들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19:55 JTBC 뉴스룸			20: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0:25 우리 집 꿀단지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영재발굴단		20:20 아바타 셰프		
21:00 KBS 뉴스 9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1:30 리얼스토리 눈		21: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1:40 수요미식회		
22:00 당신의 100세는 안녕하십니까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2:00 리멤버-아들의 전쟁				
22:55 숨터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라디오스타	23:15 한밤의 TV연예	22:50 히든싱어 4 (재)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2:00 수상한 그녀	22:00 스타워즈3:시스의 복수
23:00 KBS 뉴스라인	23:10 추적 60분	24:30 MBC 뉴스 24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24:35 나이트라인		24:30 비밀독서단 (재)	24:20 천사와 악마	24:40 터미네이터4:미래전쟁의 시작
24:50 동행 (재)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나누면 행복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준용 명예회장이 그리운 이유

〈대림그룹〉

박 종 국 의 재계이야기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은 재계의 신사다.

말수가 적지만 말과 행동이 같아서다. 그에게선 강압된 권위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 30대 그룹에서 대림그룹만큼 홍보를 안하는 기업도 드물다. 이재준고 명예회장이 소탈하고 부지런했다면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은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한 경영자였다.

4년전 가을 어느날 병원에서 이 명예회장을 만났다. 병원 접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자리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는데 훤칠하게 생긴 노년의 신사분이 들어왔다. 나는 그분을 대번에 알아봤다.

같이 따라온 대리정도 되어 보이는 직원이 접수직원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다. 접수를 보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환자가 많아 좀 기다리셔야 한다고 했다. 수행비서인 어린직원은 난감해 했지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수행비서에게 손짓을 했다.

나는 옆에 계신 그분께 인사를 했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아냐"고 웃으며 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곁눈질로 힐끔 그분의 차림새를 다시 봤다. 구두끈이 없는 팬디 구두 스타일에 회색양복 차림이었다.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했더니 이 회장은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진료를 마치고 1층 약국에 내려갔더니 이준용 회장은 약국 앞에서 직원이 약을 타오는걸 기다리고 있었다.

"증상이 어때서 왔나요? 가을만 되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해서요" 했더니

이준용 회장은 "나도 그래"라며 웃었다. "근데 내 얼굴을 어디서 봤죠?"라고 내게 물었다.나는 "9시 뉴스에 전경련 얘기만 나오면 회장님 얼굴이 나오는 걸요"라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하냐고 내게 물어 H 그룹 홍보실에 다닌다고 했더니 "아하, 그랬구먼"하시며 웃었다. 나는 아직도 그분의 맑은 눈빛과 환한 웃음을 잊지 못한다.

이 명예회장은 미국유학을 했고 대학 강단에도 있었다. 그런 그가 1966년 대림산업 계장(대졸 신입사원 직급)으로 입사를 해 굵직한 일감을 따내며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 미국유학과 교수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밑바닥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명예회장은 1994년 대림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다. 그룹 5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주력 건설업과 여기에 석유화학을 더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당시 그룹 매출은 2조원에 계열사가 11개 였다.

작년 대림의 매출은 1조원 가량 줄어든 14조 8000억원이었지만 여전히 재계 20위내를 지키고 있다. 이중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석유화학 등)의 매출이 그룹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장남인 이해욱 부회장에게 사실상 그룹을 물려주기 까지 20년을 한우물만 팠다.

대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준용 부자의 지분변화만 생겼을 뿐 큰 틀은 바뀐게 없다.

이 명예회장(42.7%) 이해욱 부회장(52.3%)→대림코퍼레이션→대림C&S·컴텍, 대림산업→대림자동차, 삼호, 고려개발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그는 경영자로서의 권리보다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 총수였다.

이 명예회장은 IMF때 개인 돈 350억원을 회사에 내놓았다. 전문경영인에 회장직을 물려주기도 했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선친처럼 겉치레를 싫어한다고 한다. 그룹관계자는 "대림그룹이라 불리는 것도 싫어"한다고 한다. 대림그룹의 홀딩스 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기업이념도"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핵심에 집중 하라. 알맹이 없는 겉치레와 내용 없는 형식을 거부하라"다.

이 명예회장의 집무실은 4층이었다. 대부분 비상계단으로 사무실에 출근 했다. 다른 대기업 총수의 집무실이 건물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혹자는 이준용 회장의 집무실이 4층인 것은 비상시 빨리 대피하려는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임직원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 아무 때나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한 이준용식 배려였다. 자신의 차문을 열거나 회사현관문을 여는 것도 직접한다.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은 원칙을 중요시한다. 평소에 말이 없다가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서나 작심하고 말을 한다. 살아온 길이 그랬다. 1988년 5공 청문회 때 "저 쪽에서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는 일화는 유명하다.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선거 때도 소신발언을 해 재계를 놀라게 했다.

자식들 결혼 청첩장에 날짜를 박지 않고 보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상을 치렀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 2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림산업은 포항제철, 광양제철, 이순신대교, 청계천 복구공사, 청계천 복원공사, 국회의사당, 한국은행 ,올림픽경기장, 독립기념관에 걸쳐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었다. 1975년 사우디 슈아이바 정유공장건설은 석유파동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대림그룹은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 희망을 보여줬다. 그 뒤에는 이 명예회장이 있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세상과 대화하려 애썼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내 놓았다. 혼탁한 이 시대 이 명예회장이 더 그리운 이유다. 또 그의 DNA가 이해욱 부회장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객원 논설위원〉

다시 떠오른 '솔개론', 변화하는 기업들

기자 수첩

김 성 현
〈유통부〉

'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솔개론'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솔개는 최고 70년을 산다. 장수하는 솔개는 40살이 됐을 때 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무거워진 날개, 닳고 닳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새로운 몸으로 더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한 솔개는 바위산에 앉아 부리로 깃털과 발톱을 뽑는다. 부리는 바위에 쳐서 부순다. 이 후 새로운 부리와 발톱, 깃털을 가진 솔개는 30년을 더 살게 된다.

2015년 국내 유통업계에는 신성장동력 찾기 바람이 불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트렌드가 변하고 온라인·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사업전략은 통하지 않아서다.

롯데그룹은 주요 사업 자체에 변화를 줬다. 삼성 SDI의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해 석유화학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위주의 유통채널에서 한층 발전한 관광쇼핑 복합몰을 선보였다. 또 '옴니채널'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원은 내년부터 참치라는 이미지를 벗고 가정간편식(HMR)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1인가구 등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HMR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미 세브란스병원과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환자를 위한 HMR을 제공 중이다.

농심도 그간 업계 1위를 지켜온 라면을 넘어 생수시장에 뛰어들었다. 좋은 물로 승부한다는 농심은 향후 50년을 책임질 주요 사업으로 생수를 선택했다.

온라인 마켓은 '배송전쟁'을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는 중이며 편의점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은행 전문 편의점', '도시락카페 편의점' 등을 선보이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포화상태인 유통업계의 악화를 전망했다. 실제 온라인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이 1~3분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신선장동력을 찾아 시동을 걸었거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올 4분기와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새옷을 입고 30년을 더 사는 결정을 한 것이다.

/minus@metroseoul.co.kr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발령)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영균 △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 추진단(TF) 단장 한순영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박도선 △ 영업본부장 배성환 △ 협력안전본부장 박권식 △ 해외사업본부장 하봉수 △ 인재개발원장 심유종 △ 전력연구원장 김동섭

◆삼성증권 (부사장) △경영지원실장 전영묵 (전무) △CPC전략실장 이상대 (상무) △스마트사업부장 정영완 △WM본부장 사재훈 △Wholesale본부장 겸 FICC사업부장 박번 △운용사업부장 김철민 △부산/경남권역장 김유경 △인사지원담당 이성한 △충청/호남권역장 김태현 △강남2권역장 유직열 △커뮤니케이션담당 이철우 △강서권역장 김홍배 △포트폴리오전략담당 겸 AI팀장 조한용 △CISO 김도형 (권역장 및 사업부장) △강동권역장 이선욱 △경기권역장 김태영 △국내법인사업부장 심재용 △투자전략센터장 겸 해외주식팀장오현석 △리스크관리담당 겸 리스크관리팀장 김남준 △투자금융사업부장 겸 투자금융팀장 정영균 △WM전략담당 김장우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장 최용석

◆아모레퍼시픽 그룹 ◇승진 △사장 배동현 △상무 필리포 차이(AP 차이나 이니스프리 디비전) 〈아모레퍼시픽〉 ◇승진 △부사장 강병도(SCM 유닛) △전무 김영수(프리미엄 BU) △전무 이상목(경영지원 유닛) △상무 강광희(경영지원 유닛 사옥건설 디비전) △상무 권오빈(경영지원 유닛 재경 디비전) △상무 김왕기(R&D 유닛 HBO 디비전) △사업부장 박두배(신성장 BU 트래블 리테일 디비전) ◇전보 △부사장 이민전(마케팅 전략 유닛) △상무 나정균(아세안 RHQ) 〈이니스프리〉 ◇승진 △실장 이성환(이니스프리 사업지원 디비전)

◆LS그룹 ◇대표이사 △도석구(LS-니꼬동제련) △김연수(가온전선) △이경범(LS네트웍스) ◇부사장 △김원일(LS산전) △윤선노(E1) △최영철(E1) ◇상무 △정교원(LS전선) △김동현(LS산전) △이동수(LS-니꼬동제련) △문명주(LS메탈) ◇이사 △이재영(LS전선) △김승환(LS전선) △이상호(LS전선) △김종필(LS전선) △신동혁(LS산전) △손태윤(LS산전) △박성실(LS-니꼬동제련) △정경수(LS-니꼬동제련) △천정식(E1) △김환(예스코)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社說

미국은 BIS경고 유념해야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미국에 묵직한 경고를 보냈다.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6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 담당 부장은 분기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에 '불안한 평온함'이 깃들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금융환경은 더 나쁜데 거시경제 전망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경제뉴스에는 우울함이 가득하다. 특히 산유국과 신흥국들은 요즘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부도 위험지수가 급등하고, 캐나다달러와 러시아 루블화 등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디플레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세계경기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리인상 문제를 가볍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 국제결제은행의 요구인 듯하다.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경제만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를 살펴보면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제결제은행의 지적처럼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긴축 예고에 국채금리가 폭등했던 2013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국가이다. 핵무기 확산 방지나 테러와의 전쟁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결정을 주도한다. 그렇다면 경제도 자국만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봐야 한다. 세계경제를 안정시킬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 세계경제를 나락 속에 빠뜨리고 테러가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결국 그 악영향은 자신에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미국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삼성 '2015 자랑스런 삼성인' 12명 선정 삼성은 올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임직원의 귀감이 된 12명을 '2015년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DNP 와쿠이 지로 부장, 다카나미 고이치 부사장, 삼성전자 케빈 몰튼 상무 부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삼성전자 정재륜 부사장 부부, 인지디스플레이 정구용 회장 부부. 둘째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장은주 마스터 부부, 삼성전자 장시호 부사장 부부, 삼성전자 쉐인 힉비 VP 부부, 삼성전자 라지브 부타니 VP 부부. 뒷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백홍주 전무, 삼성전자 김학래 전무 부부, 삼성전자 심상필 전무 부부, 제일기획 이주희 프로 부부. /삼성그룹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맡는 최경림 대사

한국인 최초 선출
내년부터 1년간 수행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최 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 대사는 1982년 16회 외무고시에 합격, 주브라질 대사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 대사는 의장에 선출된 후 연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제도를 갖춘 번영된 나라로 발전한 한국에도 큰 영광"이라며 "내년에 설립 10년을 맞는 인권 이사회가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1991년 유엔가입 이후 어느 때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 대사의 인권이사회 의장 선출로 우리나라는 내년 한해 동안 유엔의 3대 임무인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분야에서 모두 의장직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총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등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내년에 의장직을 맡는다.

/송병형 기자 bhsong@

라이언킹, 10번째 '황금장갑'

〈삼성 이승엽〉

2015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삼성 이승엽, 지명타자 부문 수상
39세 3개월 20일로 최고령 경신
'1루수 부문' 테임즈, 박병호 제쳐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이언 킹'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개인 통산 10번째 '황금장갑'을 손에 넣었다. 이승엽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이로써 이승엽은 지난해 자신이 세웠던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도 새로 쓰게 됐다.

최고령 수상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날 39세 3개월 20일이 된 이승엽은 2013년 이병규(LG)가 세웠던 최고령 39세 1개월15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1995년 삼성에서 데뷔한 이승엽은 3년차였던 1997년 첫 번째 홈런왕에 오르며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따냈다. 이후 일본 진출을 위해 한국 무대를 떠나기 전인 2003년까지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독차지했다. 7년 연속 수상에 성공한 이승엽은 국내 복귀 첫해였던 2012년 지명타자 부문에서 다시 골든글러브를 따냈다. 한 시즌을 거른 뒤 지난해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맛봤다.

이승엽은 올 시즌 불혹의 나이에도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2(7위)에 26홈런 90타점 장타율 0.562(8위)를 기록하며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 6월 3일에는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400홈런의 금자탑을 쌓았다. 홈런에 관한 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이승엽은 "개인적으로 10번째 골든글러브다. 이제 40대에 들어선 만큼 다른 40대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가족은 물론 뒤에서 도와주신 코칭스태프, 배팅볼 투수까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프로야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에릭 테임즈(NC 다이노스)는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를 또 다시 제치고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테임즈는 총 유효표 358표 중 227표를 얻어 박병호(116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올 시즌 신인왕 구자욱(삼성)이 9표, KIA의 브렛 필이 6표를 받았다.

투수 부문은 에릭 해커(NC)가, 포수 부문은 양의지(두산 베어스)가 차지했다. 야마이코 나바로(삼성)와 박석민(NC)은 각각 2루수와 3루수 부문을 수상했다. 김재호(두산)는 유격수 부문에 선정됐다. 외야수 부문은 김현수(두산), 나성범(NC), 유한준(KT)이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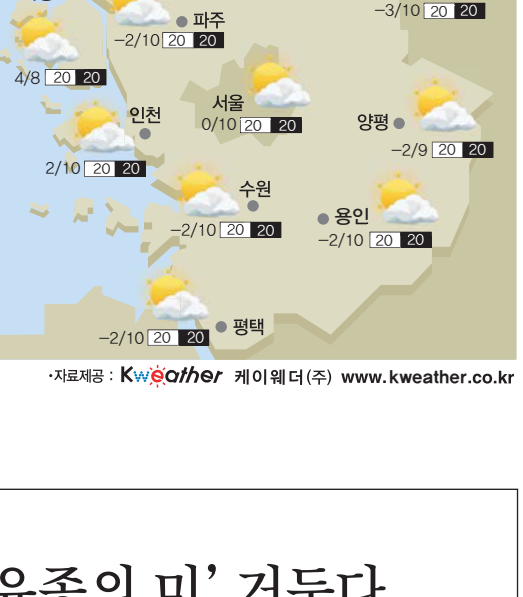
해뜸/07:34 | 해짐/17:14

12월 9일 수요일 (음력 10월 28일)

전국 맑다가 낮부터 구름… 제주도엔 밤부터 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1/9	20	20
강릉	6/14	10	20
세종	−1/10	10	20
대전	0/12	10	20
청주	−1/11	10	20
광주	3/15	20	30
전주	2/14	10	20
목포	4/14	20	20
제주	10/17	20	60
대구	3/13	10	20
창원	7/14	10	20
포항	6/14	20	20
부산	9/16	10	20
울릉	7/11	20	20



수도권 날씨 10 ~ 0 ℃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7:14/19:10	00:37/13:14
인천	03:14/15:43	09:29/22:05
울산	06:15/18:38	12:24/ - : -
군산	01:40/14:14	08:12/20:50
목포	00:12/13:00	05:48/18: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내년 LPGA '다국적 인종 전시장' 된다

中·몽족·필리핀계 선수 Q스쿨 통과
승승장구 태극낭자와 동반 활약 기대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대거 활약할 전망이다. 아시아 선수들은 물론 몽족계와 흑인, 이스라엘 국적자 등 다채로운 선수들이 함께 대결한다.

지난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LPGA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퀄리파잉스쿨에서는 총 20명의 선수가 내년 시즌 LPGA투어에서 뛸 자격을 획득했다. 이 중 아시아 국가 출신은 8명이다. 미국 국적 아시아계 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10명에 이른다.

특히 중국과 태국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퀄리파잉스쿨 재수생인 펑시민(중국)은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17세 때 우한 오리엔트 마스터스 챌린지에서 우승하고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 최연소 우승과 사상 첫 아마추어 우승 기록을 남겼던 유망주다.

펑시민은 지난해 퀄리파잉스쿨에서 공동6위에 올라 올해 LPGA투어에 데뷔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상금랭킹 135위에 그쳐 퀄리파잉스쿨을 또 한 번 치렀다. 5라운드 90홀 동안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고 1위로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했다. 그는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조건부 출전권으로 14개 대회에만

지난 7일 열린 LPGA 퀄리파잉스쿨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중국의 펑시민(왼쪽)과 공동 10위로 한국 국적자로 유일하게 합격증을 받은 양자령은 내년부터 LPGA 투어 선수가 됐다. /LPGA 홈페이지

출전한 양진(중국)도 이번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내년 전 경기 출전권을 받았다. 중국은 세계랭킹 6위 펑샨샨을 필두로 린시유, 펑시민, 양진 등 4명의 선수가 내년 LPGA투어에서 전 경기 출전권자로 활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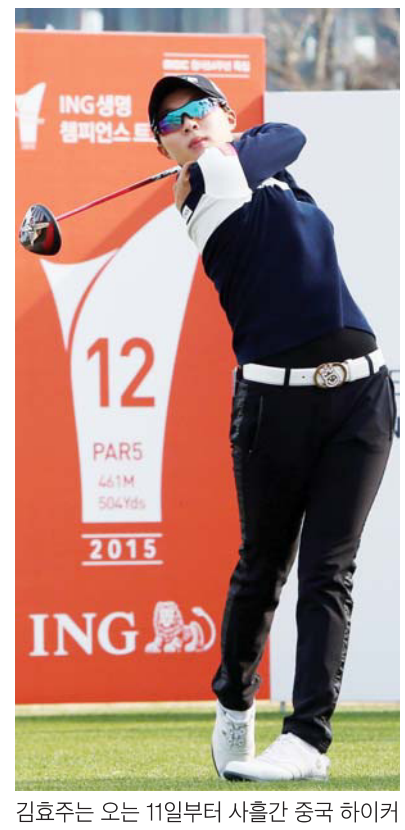
태국은 이번 퀄리파잉스쿨에서 최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부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딴 붓사바콘 수카판은 공동 2위로 내년 신인왕에 도전장을 냈다.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뛰던 논타야 스리사왕도 공동 10위에 올라 내년 L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수카판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베냐파 니팟소폰과 파나라트 타나폴부냐라스도 나란히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한국은 한국계 선수를 포함해 2명의 전 경기 출전권자를 배출했다. 양자령(20)은 공동 10위로 한국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합격증을 받았다. 재미교포 그레이스 나(24)는 수카판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해 대망의 LPGA 투어 선수가 됐다./장병호 기자

김효주, 中서 '유종의 미' 거둔다

KLPGA 현대차오픈 2연패 도전
전인지·박성현 등과 '샷 대결'



김효주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중국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김효주(20·롯데)가 2015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국으로 간다.

김효주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중국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클럽(파72·6342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15년에 열리지만 2016 시즌 정규투어에 속해 있다. 성적과 상금 등도 2016 시즌에 포함된다.

김효주는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유난히 강하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12년 이 대회에서는 프로 전향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중국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도 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김효주는 지난 3월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 문제로 기권이 잦았다. 기대만큼 화려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번 현대차 오픈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2015 KLPGA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쥔 전인지(21·하이트진로)도 이 대회에 출전한다. 어깨가 좋지 않지만 미국으로 가기 전 한국 팬에게 인사하기 위해 출전 신청을 했다.

올해 3승을 올린 박성현(22·넵스)을 비롯해 김민선(20·CJ오쇼핑), 하민송(19·롯데), 박결(19·NH투자증권), 지한솔(19·호반건설) 등도 출전한다. 드림투어(2부투어)에서 4승을 올리며 상금왕을 차지한 박지연(20·삼천리)도 정규투어 데뷔전을 치른다.

내년 시즌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나이키와 종신계약

44년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31·미국)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평생 계약을 맺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8일 "나이키가 제임스와 평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며 "후원 금액은 나이키 44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키가 특정 선수와 평생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키 관계자는 ESPN과 인터뷰에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르브론 제임스와 평생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라며 "그와는 12년간 사업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 그의 선수 생활은 물론 은퇴 이후의 잠재력까지 평가해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SPN은 "올해 여름 오클라호마시티의 포워드 케빈 듀랜트가 맺은 10년간 3억 달러(약 3500억원) 이상의 규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병호 기자

사당역 확 바뀐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가속도

환승거리 짧아지고 승강기 18대 증설 예정

서울 사당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승센터가 들어설 방배동 사당주차장 부지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센터 건립 사업자인 서울메트로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서울메트로측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시에서 시유지를 주면 센터를 건립하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낡은 지하철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유상매각이라는 원칙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본회의에서 현물 출자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연말까지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2022년 8월까지 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센터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체면적 약 29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환승센터는 전체 복합시설 면적의 7.3%만 차지한다. 30.6%에는 판매시설이 유치되고 30.8%에는 업무·문화시설이 조성된다. 나머지는 주거복지시설로 꾸며 수익을 창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하는 게 메트로의 계획이다. 침수가 잦은 지역인 만큼 10만t 규모의 빗물저류조도 만든다.

메트로는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하는 시간이 1분 가량 단축되고 거리도 66.9m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철 사당역 2호선과 4호선 간 평균 환승 거리는 기존 171.9m에서 154m로 짧아지고 승강기도 18대 증설돼 시민 이동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대로의 통행속도 역시 시간당 1.6km 빨라지고 사당역 사거리의 지체 시간은 차량 1대당 13.9초가 감소해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SH공사가 공공개발자로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참여를 희망해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걸림돌은 있다. 사업부지에는 민간사업자의 부도에 따라 보상을 주장하는 분양계약자 23명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홍콩 MTR 사례만 보더라도 수입의 60%는 부대사업 등 비운송 수입이며, 메트로도 이러한 모델로 가야 한다"며 "자체 사업 수익으로 낡은 시설 개선과 안전 투자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SH공사가 공공개발자로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겨울한강따라 생태프로그램 즐기며 추억 만들자

여의도샛강·뚝섬 등지서 총 63종 운영

추운 겨울을 가족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한강 겨울 생태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겨울을 맞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프로그램 63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 뚝섬, 잠실, 잠원한강공원, 암사,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수변센터,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9개소에서 운영된다. 겨울한강생태프로그램은 '한강의 동물, 곤충 알기', '철새 관찰', '동짓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동짓날을 기념해 '팥죽먹고 새끼꼬기'를 오는 19,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자연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리스'는 12일과 24일 운영한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13일 '솔방울 트리만들기', 27일 '연말가랜드 만들기'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철새 관찰 프로그램인 '비행의 비밀'은 이달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

이밖에도 한강 곳곳의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가족과 연인에겐 색다른 추억거리다.

참가 신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일정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의 명물 철새를 관찰하거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한강생태프로그램과 함께 뜻 깊은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한강 생태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에 아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한강 생태프로그램 '철새관찰'을 하고 있다. /서울시

물벼룩·미생물로 한강 유해물질 감시한다

물벼룩이 한강 상수원에 기름이나 독극물 같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지를 감시한다.

서울시는 물벼룩과 반달말 등 생물감시장치를 강북·암사·자양·풍납취수장에 모두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생물감시장치에 유해물질이 유입되면 물벼룩은 행동 패턴이, 반달말은 광합성 효율이 변한다. 전기화학적 활성미생물은 미생물 전지의 전류가 변한다.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한 후 한강 원수에 유해물질이 유입된 적은 아직 없었다.

생물감시장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서울물연구원에서는 생물감시장치를 이용한 유해물질의 독성평가 연구에 이어 생물감시장치의 운영 고도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페놀 등 유해물질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영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생물감시장치는 예측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의 유입으로부터 아리수 원수를 지키는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59호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스포츠]
이승엽
10번째
황금장갑
18

연재만화

14

‘강남의 강남’ 황금노선 타고 뜬다

〈용인 수지〉

지하철을 읽으면 부동산이 보인다

② 신분당선 용인 수지

서울·강남까지 20분내 주파
서울-세종고속도 개통 호재로

성복역·동천역 인근 아파트들
청약경쟁률 10대1 쉽게 넘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일대 주택 시장이 실수요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수지구는 내년 2월 신분당선 연장선(경기 성남 분당 정자~수원 광교)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혜 지역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지구는 전체 7개 정차역 가운데 미금역(2017년 개통 예정)을 제외하고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상현역, 광교중앙(아주대)역, 광교(경기대)역 등 여섯 개 역(12.8km)이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선로변 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를 투입해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시설물 검증시험과 시운행을 완료한 이후 개통될 예정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분당, 광교를 모두 잇는 황금 노선 수혜 단지가 된다. 앞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서울 강남~성남 정자)은 최고 속도 90㎞, 평균 속도 70㎞로 기존 지하철 속도인 30~40㎞보다 2배 가량 빠르다.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16분안에 도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성복역에서 강남역 출퇴근길은 20분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도로가 2025년 개통되면 최대 129분 걸리던 서울~세종 간 통행 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된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16만662㎡)만한 상업시설인 2356가구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인 롯데캐슬이 들어선다.

이같은 호재는 청약 인기로 이어졌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성복동에 선보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1918가구(특별공급) 모집에 2만96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천역이 가까운 GS건설의 동천 자이 아파트도 평균 4.6대 1, 최고 19.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화건설이 상현동에 분양한 광교상현 꿈에그린도 청약에서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한 뒤 지난 주말부터 잔여세대 분양에 들어갔다.

청약 뿐만 아니라 집값도 좌우했다. 정자역과 접한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신분당선 개통 전인 2010년 10월 5억30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운행이 시작된 2011년 10~11월 각각 6억원대에 거래됐다. 같은 정자동이면서 역과 1.3㎞ 떨어진 ‘한솔마을 청구 아파트’ 전용 84㎡는 신분당선 개통 전인 2010년 10월 4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개통 후인 2011년 10월 4억8500만원에 거래돼 큰 차이가 없었다. 역세권 편입 여부에 따라 집값은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용인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용인 수지 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올 초 분양한 ‘e편한세상 수지’는 분양권에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데건설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GS건설 동천 자이.

한화건설 광교 상현 꿈에그린.